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선 희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유 조 안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선 희

정선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선 희

본 연구는 (1)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2)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적용되었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 일차적·이차적 스트레스 요인, 자원 등이 서로 연관되어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과정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을 인지된 동네 무질서로,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는 불안·우울과 공격성이 채택되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적용은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4차년도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만 16세~18세의

청소년과 그 부모다. 해당 자료의 표집은 2003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06년 4차년도 패널 조사에서는 총 3,077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는 1개의 이상치를 제외하고, 3,07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가설을 세웠으며,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심해질수록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공격성도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는 아주 부분적인 매개효과만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불안·우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개입하는 프로그램,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에 경험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청소년, 인지된 동네 무질서, 문제행동,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매개효과
학 번 : 2011-20144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스트레스 과정 모델	6
제 2 절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16
제 3 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	26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0
제 1 절 연구모형	40
제 2 절 연구가설	41
제 4 장 연구방법	42
제 1 절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42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43
제 3 절 분석방법	51
제 5 장 연구결과	53
제 1 절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3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56
제 3 절 가설 검증	60
제 6 장 결론	82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82
제 2 절 연구 결과 논의	85
제 3 절 연구의 함의	94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18

표 목 차

<표 5-1>	53
<표 5-2>	56
<표 5-3>	59
<표 5-4>	67
<표 5-5>	74
<표 5-6>	76
<표 5-7>	79
<표 5-8>	81

그 립 목 차

<그림 1>	12
<그림 2>	40

부 록 목 차

02-4-1 중2 패널 4차년도 청소년용질문지	121
02-1-2 중2 패널 1차년도 가구용질문지	128
02-4-2 중2 패널 4차년도 가구용질문지	130

제 1 장 서론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성장하는데, 몇몇 문제행동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제행동 가운데에서도 우울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서 청소년의 우울은 특성화계고(33.7%), 일반계고(32.3%), 중학교(28.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이 중 우울감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고등학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학년(33.8%), 2학년(32.2%), 1학년(31.9%) 순으로 우울감 유병률이 높았다. 즉, 우울감 유병율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매년 제기되는 학교폭력과 같은 공격성 문제도 그 양상이 심각하다. 2010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38.8%). 이러한 학교 폭력 피해는 같은 가해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고(44.0%),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에도(0.9%), 과반수이상(68.75%)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한국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학교생활 적응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권재환, 2010; 김경은, 최은희, 2012; 김재엽, 이순호 2011; 노석준, 이동훈, 김인숙, 송연주, 2011; 도기봉, 2008; 박미정, 김희순, 박소미, 최지혜, 2011; 박재연, 정익중, 2010; 이득연, 박자양, 이동훈, 2006; 차미영, 강승호, 2010), 성인기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생활사건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esmann, Dubow & Boxer, 2009; Wickrama & Noh, 2010; Wickrama, Conger, & Abraham, 2005).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복지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양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심리학적 요인과 일부 관계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존감, 자기통제 등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지만(고정자, 2005; 김성경, 2008; 김은이, 오경자, 2006; 박진경, 도현심, 2001; 박현선, 1999; 오승환, 2006; 오영경, 이형실, 2010; 이은주, 2010; 이주리, 2008), 다양한 사회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중 일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 부모감독, 친구지지 등의 관계적 요인의 영향을 밝혀냈을지라도(김성경, 2008; 김은이, 오경자, 2006; 박진경, 도현심, 2001; 박현선, 1999), 지역사회 영향력을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남겼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지역사회 요인을 고려하는 시도가 부족한 가운데, 최근 보고되고 있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거주지역의 사회통제가 결여된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단서를 의미한다(Ross & Mirowsky, 1999). 여러 선행연구에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관련된 경험은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Caughy, Nettles, & O' Campo, 2008; Miller & Taylor, 2012; 강현아, 2010; 강희경, 김영미, 이은주, 2009).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해서도 동네 무질서와 관련된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ayles, Coatsworth, Pantin, & Szapocznik, 2009; Wheaton & Clarke, 2003).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개인 수준에서 동네 수준까지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공격성의 관계를 상세히 다루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명확히 개념화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성을 외현화 문제행동에 포함시켜서 살펴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어떠한 가족 관계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진 바가 없다. 가족 관계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하 부모-자녀 관계)를 매개효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인지된 동네무질서와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 연구는 김영미(2011)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데, 김영미(2011)는 부모-청소년 관계 스트레스가 이웃 무질서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여기서 보고하고 있는 심리적 부적응은 불안·우울과 위축을 묶어서 살펴본 것으로, 불안·우울만을 위한 기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매개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처럼 연구가 부족했던 것에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뒷받침 해줄만한 이론적 근거와 모델에 대한 소개가 부족했던 이유도 있다.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해체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징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전제에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였다 (Aneshensel, 2010; Gonzales et al., 2011; 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12; Kornhauser, 1978; Leventhal & Brooks-Gunn, 2000; Pearlin, 1989, 1999; Wickrama & Noh, 2010). 그러나 지역사회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 학계에서도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the stress process model)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neshensel, 2010). Pearlin(1999)은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설명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stressors)과 사회구조가 연관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social and economic statuses)에 따라 거주하는 동네가 달라지며, 이러한 동네 환경의 스트레스 요인(neighborhood ambient stressors)이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primary stressors)과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secondary stressors)을 통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준다(Pearlin, 1999). 여기서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과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건과 경험이 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된 요인들이다. 예컨대, 아버지의 실업은 직장이라는 영역 안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곧이어 가족 모두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가족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Elder, 1974; Milkie, 2010). 한 가지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부차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입각해보았을 때,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문제행동의 매개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만 16세~만18세 청소년이 포함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4차년도 데이터’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의

를 확장시키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주로 정신건강을 불안이나 우울,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살펴보았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더라도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명확히 개념화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사회 특징이 혼합된 요인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관련 개념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를 상세하게 살펴본 것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선 외현화 문제행동을 공격성으로 대표하고,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의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매개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후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가족, 청소년을 연계하여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과 의의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스트레스 과정 모델

1.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개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대한 개념정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Ross와 Mirowsky(1999)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개념화하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지역사회 질서와 사회통제가 결여된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단서를 일컫는다. 질서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법이 준수되는 상태이며, 통제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다. 질서와 통제는 거주민이 인식하는 *시각적 단서*[원문강조]로 나타날 수 있다. (p. 413)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as conceptualized here, refers to visible cues indicating a lack of order and social control in the community. Order is a state of peace, safety, and observance of the law, and control is an act of maintaining this order. Order and control are indicated by *visible cues*[원문강조] that residents perceive. [p. 413])

이처럼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주민들이 당장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네 무질서에 한정된다. 따라서 본문의 동네(neighborhood)라는 용어는 전반적으로 거주 지역을 의미한다(Aneshensel, 2010;

Roosa, Jones, Tein, & Cree, 2003; Ross & Mirowsky, 1999). ‘동네’의 유사어로는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community)가 있다. 공동체는 지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유대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컫는다(Roosa et al., 2003).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사회적 무질서(social disorder)와 물리적 무질서(physical disorder)로 분류된다(Ross & Mirowsky, 1999). 먼저, 사회적 무질서는 “사람이 연관된 사회통제의 결여를 나타내는 단서(signs indicating a lack of social control that involve people)” (Ross & Mirowsky, 1999, p. 413)를 뜻한다. 이는 주민들 간의 싸움과 소요사태, 거리에 폐를 지어 몰려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술에 취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Ross & Mirowsky, 1999; 강희경 외, 2009). 둘째, 물리적 무질서는 “동네의 전반적인 물리적 정황(the overall physical appearance of a neighborhood)” (Ross & Mirowsky, 1999, p. 413)을 말한다. 이는 동네가 더럽거나 낡은 정도, 공공기물이 파손된 정도 등으로 나타난다(Ross & Mirowsky, 1999; 강희경 외, 2009).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자의 다양한 동네 인식·경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네와 관련된 많은 개념은 크게 사회적·물리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는 동네 해체(neighborhood disorganization)와 범죄사건(crime events), 인지된 동네 폭력(Perceived neighborhood violence) 등이 있다(Karriker-Jaffe et al., 2012; Schofield et al., 2012). 둘째, 물리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는 물리적 비시민성(physical incivilities), 동네의 질 낮은 물리적 특징(poor physical characteristics) 등이 있다(Butler, Kowalkowski, Jones, & Raphael, 2012; Caughy, Nettles, & O’Campo, 2007). 셋째, 사회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함께 묘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주변 위험(ambient hazard), 동네 문제(community problems), 동네 스트레스(neighborhood stress), 동네 위험(neighborhood risk),

동네 스트레스 요인(neighborhood stressors), 동네의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neighborhood negative social climate), 인지된 동네 문제(neighborhood problems), 동네의 질(neighborhood quality), 지역사회 환경의 위협성 등이 있다(Aneshensel & Sucoff, 1996; Caughy et al., 2007; Deng et al., 2006; Gayles et al., 2009; Gutman, McLoyd, & Tokoyawa, 2005; Kim, Nair, Knight, Roosa, & Updegraff, 2009; Meyers & Miller, 2004; Miller & Taylor, 2012; Roberts, Roberts, & Chan, 2009; Roosa et al., 2003; Roosa et al., 2005; Wheaton & Clarke, 2003; 강현아, 2010).

이처럼 매우 많은 유사 개념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Ross와 Mirowsky(1999)가 정의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처럼 질서와 사회통제가 결여된 현상을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eshensel & Sucoff, 1996; Butler et al., 2012; Stiffman, Hadley-Ives, Elze, Johnson, & Doré, 1999; 강희경 외, 2009; 김영미, 2008,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관계는 물론,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관련 개념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트레스 과정 모델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해체는 문화와 사회구조, 혹은 문화와 사회구조의 관계에서 차이가 잘 교합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Kornhauser, 1978). 즉, 사회해체이론은 모든 사회에 기본 가치가 있고, 이러한 가치에 기초한 규범이 있다고 전제한다(Kornhauser, 1978; Leventhal & Brooks-Gunn, 2000; Pearlin, 1999; Wickrama & Noh, 2010; 김영미, 2011).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규범을 어기며, 이에 따라 모든 사회는 어느 정도 해체되어 있다(Kornhauser, 1978). 사회해체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안전하고 풍족한 동네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족을 비롯한 사회제도의 기능은 약화되어 개인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eshensel, 2010; Gonzales et al., 2011; Karriker-Jaffe et al., 2012; Kornhauser, 1978; Leventhal & Brooks-Gunn, 2000; Pearlin, 1989, 1999; Siegel & Welsh, 2009; Wickrama & Noh, 2010; 김세원, 2009; 김영미, 2011).

사회해체이론은 긴장모델(strain model)과 통제모델(control model)¹⁾의 두 갈래로 발전했는데(Kornhauser, 1978),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긴장모델에서 발전한 것이다. 긴장은 열망(aspiration)과 기대(expectation)의 차이로 발생한 좌절을 뜻한다(Kornhauser, 1978).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와 동네, 가족 환경 등에서는 이러한 좌절이 발생하기 쉬우며, 좌절과 긴장을 자주 경험한 개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1) 통제모델에서 사회통제는 보상과 처벌로서, 개인이 사회 규범에 잘 순응하도록 기능한다(Kornhauser, 1978). 통제의 종류는 죄의식, 감시 및 감독, 애착,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역할과 의무 등 다양하다(Hirschi, 2002; Kornhauser, 1978; Leventhal & Brooks-Gunn, 2000; Siegel & Welsh, 2009). 이러한 사회통제는 가족, 학교, 동네 및 공동체 등의 단위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irschi, 2002; Kornhauser, 1978; Leventhal & Brooks-Gunn, 2000; Roosa et al., 2003; Siegel & Welsh, 2009; Wickrama & Noh, 2010).

수 있다(Aneshensel, 2010; Agnew & White, 1992; Karriker-Jaffe et al., 2012; Kornhauser, 1978; Pearlin, 1983, 1989, 1999; Siegel & Welsh, 2009; 김세원, 2009). 이러한 긴장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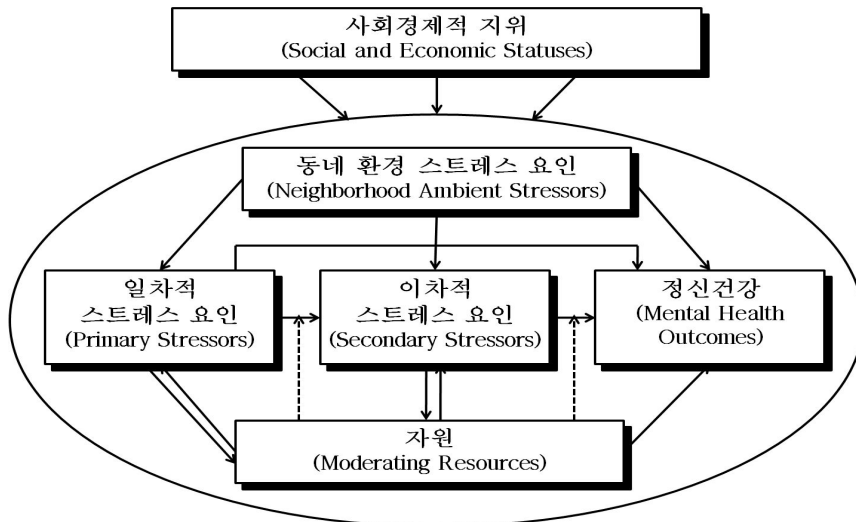
스트레스는 자극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개인의 반응으로도 정의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Lazarus & Folkman, 1984; Pearlin & Schooler, 1978). 그러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의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자원의 한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Lazarus & Folkman, 1984; Pearlin, 1981, 1989, 1999).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애에서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극심한 불안과 우울, 분노와 적의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할 수 있다(Golan, 1978; Lazarus & Folkman, 1984; Pearlin & Schooler, 1978; Rapoport, 1970).

스트레스 요인(stressors)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험적 상황(the experiential circumstances that give rise to stress.)” (Pearlin, 1989, p. 243)을 뜻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생활사건(life events)과 만성적 긴장(chronic strains)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Pearlin, 1989, 1999). 첫째, 생활사건은 사람들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개인의 안녕에 큰 지장을 준다(Pearlin, 1999). 대표적인 예로는 실업, 이혼,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 등이 있다(Elder, 1974; McLoyd, 1989; Milkie, 2010; Pearlin, 1989, 1999; Turner, 2010; Werner & Smith, 1982). 둘째, 만성적 긴장은 생활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요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갈등, 위협 등을 포함한다(Pearlin, 1989, 1999). 이러한 만성적 긴장은 결혼, 일(job), 부모됨(parenthood) 등과 관련이 깊으며, 부부갈등이나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Menaghan, 2010; Parke et al., 2004; Pearlin, 1989, 1999; Turner, 2010). 두 스트레스 요인은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Pearlin, 1989, 1999), 그 중에서도 만성적 긴장이 스트레스의 결과를 더 잘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Compas, 1987; Daniels & Moos, 1990; 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Pearlin, 1989).

스트레스 요인은 전이되는 특징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에 이어서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Aneshensel, 2010; Pearlin, 1989, 1999).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과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은 등장시기의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두 스트레스 요인 모두 주요한 영향요인이다(Pearlin, 1989, 1999). 이처럼 스트레스가 전이되는 과정을 스트레스 확산(stress proliferation)이라고 한다(Pearlin, 1989, 1999).

Pearlin(1999)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따르면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개인은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연달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Pearlin, 1989, 1999). 스트레스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도 자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Pearlin, 1989, 1999),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의 확산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권 내에서 이루어진다(Aneshensel, 2010; Pearlin, 1989, 1999).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지위와 동네환경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영역은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위험을 증폭시키는 맥락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Aneshensel, 2010; Pearlin, 1999).



〈그림 1〉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1999, p. 398).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람들의 배경과 상황에 대한 정보로, 전반적인 스트레스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Aneshensel, 2010; Pearlin, 1989, 1999). 이는 소득, 교육수준, 성별, 나이, 직업적 지위, 가족구조, 인종과 민족성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Aneshensel, 2010; Avison, 1999, 2010; Menaghan, 2010; Pearlin & Lieberman, 1979; Pearlin, 1989, 1999; Pearlin, Menaghan, Morton, & Mullan, 1981; Turner, 2010). 각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불평등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경험은 정신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Aneshensel, 2010; Avison, 2010; Pearlin, 1989, 1999).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불평등은 동네라는 맥락 안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Pearlin, 1999).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단 주민 간에 공유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구별된 영역에서 다루어진다(Aneshensel, 2010; Pearlin, 1999). 동네라는 삶의 영역에서 거주민들은 다 허물어져가는 주택, 성가신 이웃, 소음, 범죄, 폭

력, 오염, 거리의 쓰레기 등으로 사회해체 수준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다(Aneshensel & Sucoff, 1996; Kanner et al., 1981; Pearlin, 1999; Ross & Mirowsky, 2001; 김희운, 2010).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은 지역 단위의 빈곤율, 범죄율 등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대표되었다(Aneshensel & Sucoff, 1996; Aneshensel, 2010; Ross & Mirowsky, 2001; Wheaton & Clarke, 2003).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었는데(Aneshensel & Sucoff, 1996; 김희운, 2010),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활용하였다(Aneshensel & Sucoff, 1996; Aneshensel, 2010; Ross & Mirowsky, 2001; 김영미, 2011). 이렇게 채택된 동네 무질서는 실증적으로도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Aneshensel & Sucoff, 1996; Aneshensel, 2010; Ross & Mirowsky, 2001, 2009; 김영미, 2011).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인지된 동네 무질서로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을 반영하고자 한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통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가족이든 거주 동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네에서 발생한 문제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Milkie, 2010; 김영미, 2011). 동네의 문제로는 동네 무질서와 범죄, 가난, 각종 사고 등이 있으며, 가족은 이러한 동네 문제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Milkie, 2010). 동네 문제에 만성적으로 시달린 결과 몇몇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Gutman et al., 2005; Milkie, 2010). 한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한 긴장과 사건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전이되어 이들의 역할, 생활여건, 관계의 질, 감정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Gutman et al., 2005; Milkie, 2010).

동네 무질서로 인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본 연구는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 외부에서 발생한 동네의 무질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차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Gonzales et al., 2011; Gutman et al., 2005; McLoyd, 1990; Roosa et al., 2005; 김영미, 2011). 본 연구에선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자원은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과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할 수 있다(Pearlin, 1999), 자원의 예로는 대처(coping)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있으며, 자존감(self-esteem), 숙달(mastery), 인지적 자기 통제 (cognitive self-control) 등의 자아개념(self-concept)과 집합적 효능성(collective efficacy) 등이 있다(Coyne & Downey, 1991; Foster & Brooks-Gunn, 2009; Pearlin & Schooler, 1978; Pearlin, 1989, 1999; Pearlin, Mullan, Semple, & Skaff, 1990; Rohde, Lewinsohn, Tilson, & Seeley, 1990; Rosenbaum, 1980; Rosenberg, 1989;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자원은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발전하지 않도록 교란하는 기능이 있다(Pearlin, 1989, 1999).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과정의 결과(outcome)는 “유기체적 스트레스의 만연(the manifestations of organismic stress.)” (Pearlin, 1989, p. 252)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수준에서 발견되지만 (Pearlin, 1989; Milkie, 2010),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과정의 결과는 정신건강으로 대표된다(Aneshensel, 2010; Pearlin, 1999).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은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Pearlin, 1989, 1999).

본 연구는 사회문제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두 가지 차원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행동은 정신건강 수준을 진단하는 기준인 DSM-IV의 진단체계와 많은 관련이 있다(Achenbach, Dumenci and Rescorla, 2002). 예컨대, 내재화 문제인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은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henbach et al., 2002). 외현화 문제인 규칙위반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은 반행동문제와 품행장애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henbach et al., 2002).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는 징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병리적이고 진단적인 관점에서만 치우쳐서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활용하려고 한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본 연구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을 인지된 동네 무질서로,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문제행동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확산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밖에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다양한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 자원은 통제하기로 하였다.

제 2 절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adolescent)은 사춘기(puberty)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를 뜻한다(Arnett, 2007; Steinberg, 1999;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2004). 이 시기의 청소년은 2차 성장과 함께 다양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며(Arnett, 2007; Steinberg, 1999; 김성이 외, 2004), 이에 따라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정체성을 형성한다(Arnett, 2007; Ingersoll, 1989; 이인정, 최해경, 2007).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청소년기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국외에선 흔히 소속된 교육기관의 수준에 따라 11세에서 14세 사이가 전기 청소년기, 15세에서 18세 사이가 중기 청소년기, 18세에서 21세 사이가 후기 청소년기로 규정되었다(Steinberg, 1999). 국내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참고하여, 전기 청소년은 12세에서 18세에 속한 사람을 뜻하고, 후기 청소년은 18세에서 24세에 속한 사람을 뜻하곤 하였다(이인정, 최해경, 2007).

이와 같이 사회의 법체계에 따라 청소년기가 구분되는가 하면, 사회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Arnett(2007)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착안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를 따로 구분해서 청소년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 청소년은 10세에서 14세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되었고, 후기 청소년은 15세에서 18세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되었다(Arnett, 2007). 그리고 18세에서 25세에 속한 사람은 등장 성인기(emerging adulthood)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다(Arnett, 2007).

이처럼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연령대 기준은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구분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청소년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연령대는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11세~14세와 15세~19세를 기점으로 서로 구별되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사회적인 특징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Berk, 2001). 신체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여자 청소년은 15세 전에 청소년기에 신체적인 급성장(growth spurt)을 이루지만, 남자 청소년은 1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체적인 급 성장을 이룬다(Berk, 2001). 인지적인 측면에서, 형식적 조작 사고는 11세 즈음 발달하기 시작하고 15세 이후엔 숙달되는 경향이 있다(Berk, 2001). 사회적인 측면에서, 11세~14세 때 중요했던 또래의 영향력은 15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줄어들지만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Berk, 2001; Dunphy, 1963; Steinberg, 1999). 그 밖에도 두 청소년기를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이 존재한다.

요약하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며, 변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후기 청소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후기 청소년기의 연령대는 선행연구에 따라 만 16세~18세로 채택했다.

2. 문제행동의 개념

스트레스 과정의 결과는 정신건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Aneshensel, 2010; Pearlin, 1999),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문제행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문제행동은 “어른이 보기에 문제의 근원으로 보이는 청소년의 행동(behavior that young people engage in that is viewed by adults as a source of problem)” 을 말한다(Arnett, 2007, p. 475).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Achenbach, 1991; Achenbach et al., 2002; Arnett, 2007; Kimonis & Frick, 2012; Ollendick & Sander, 2012). 그동안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내재화 문제행동 중에서도 불안·우울이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Conger et al., 2002; 김성경, 2008; 오승환, 2006; 오영경, 이형실, 2010), 외현화 문제행동 중에는 공격성으로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세원, 2009; 오영경, 이형실, 2010).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동향을 따라서 불안·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두 차원의 문제행동을 반영하고자 한다.

1) 내재화 문제행동으로서 불안·우울

내재화 문제행동은 과잉 통제되어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Arnett, 2007; Kimonis & Frick, 2012; Ollendick & Sander, 2012), 이 문제행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불안과 우울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컨대, Achenbach et al.(2002)은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소를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으로 제시하였다. Arnett(2007)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우울, 불안, 식이장애를 꼽았다. Ollendick와 Sander(2012)는 내재화 차원에 불안과 정동 장애를 포함시킴으로써 걱정과 수줍음, 우울 등의 문제를 반영하였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내재화 문제행동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안과 우울은 공통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보인다(Conger et al., 2002).

국내의 선행연구도 대부분 불안·우울에 초점을 두고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있으며(김성경, 2008; 오승환, 2006; 오영경, 이형실, 2010),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동향을 따라 불안·우울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불안은 세 가지 요인으로 정의되는데,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이 있다(Lang, 1979; Ollendick & Sander, 2012, 재인용). 생리적인 특징은 심장박동수와 호흡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인지적인 특징은 파괴적이고 도움이 될 수 없는 사고로 볼 수 있다(Lang, 1979; Ollendick & Sander, 2012, 재인용). 행동적인 특징은 불안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피하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난다(Lang, 1979; Ollendick & Sander, 2012, 재인용).

우울은 일반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Arnett, 2007; Steinberg, 1999), 징후(sign), 증상(symptom), 증후군(syndrome)으로 구분된다(Gilbert, 2004). 징후로서의 우울의 예로는 “관찰된 아동·청소년의 정신운동성 불안(child’s observed psychomotor agitation)” (Gilbert, 2004, p. 317)이 있다. 증상으로서의 우울의 예는 “아동·청소년이 보고한 토라진 느낌(child’s self report of feeling grouchy)” (Gilbert, 2004, p. 317)이 있다. 증후군으로서의 우울은 징후와 증상을 합친 것으로, DSM-IV의 우울 장애들과 관련이 있다(Gilbert, 2004). 이 중에서도 증상은 증후군보다 민감하게 사회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Mirowsky & Ross, 1989; Pearlin, 1989, 1999).

불안(anxiety)과 우울(depression)은 함께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Kovacs, Gatsonis, Paulauskas, & Richards 1989; Ollendick & Sander, 2012; Ollendick & Yule, 1990),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 두 문제는 한 구성체로 묶여서 연구되곤 하였다(Achenbach et al., 2002; Achenbach, 1991; Butler et al., 2012, Conger et al., 2002;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Gutman et al., 2005; 강현아, 2010; 김성경, 2008; 박현선, 1999; 오승환, 2006; 오영경, 이형실,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동향을 따라 불안과 우울을 하나의 구성체로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의 불안·우울은 청년기 발달까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발달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불안·우울을 경험한 청년은 원 가족에서 경험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되풀이해서 겪을 가능성이 높고(Wickrama, et al., 2005), 지속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다(Ollendick & Sander, 2012; Rueter, Scaramella, Wallace, & Conger, 1999; Wickrama & Noh, 2010). 또한, 청소년의 불안·우울은 한국 사회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미정 외, 2011; 박재연, 정익중, 2010; 차미영, 강승호, 2010). ADHD,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해서도 고등학생의 불안·우울은 설명력을 보인다(노석준 외, 2011; 이득연 외, 2006).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안·우울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2) 외현화 문제행동으로서 공격성

외현화 문제행동은 과소 통제되어 외부세계로 드러난 문제행동들을 포함하며(Arnett, 2007; Kimonis & Frick, 2012), 학자마다 외현화 차원에 포함시킨 요소는 다르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공격적인 특징을 띤다. Achenbach et al.(2002)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소를 규칙위반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Arnett(2007)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비행, 폭력, 약물사용, 위험 운전,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포함시켰다. Kimonis와 Frick(2012)는 진단 기준에 중점을 두고 두 가지 분류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제행동 분류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와 연관해서 주의력부족, 충동성, 과잉행동의 특성을 보였다. 두 번째 문제행동 분류는 반항성 장애(OD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및 품행장애(CD: conduct disorder)와 연관된 것으로, 품행문제와 공격적이고 비행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공격성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세원, 2009; 오영경, 이

형실, 2010),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동향을 따라 공격성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초기 공격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공격성의 정의는 행동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부 보상에 의해 강화된 공격 행동에 초점을 뒀던 Buss(1961)는 “다른 유기체에게 유해한 자극을 전하는 반응(*a response that delivers noxious stimuli to another organism*)” (p. 1, 원문강조)으로 공격성을 정의하였다. 반면, Dollard et al.(1939)은 공격 의도를 선행 사건에 포함시켰고, Baron(1977)는 의도와 행동을 함께 강조하였다. 이 중 Baron(1977)의 정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그는 “공격성은 그러한 대우를 피하고 싶은 유기체를 해치거나 상처 입히려는 어떤 형태의 행동이다(*Aggression is any form of behavior directed toward the goal of harming or injuring another living being who is motivated to avoid such treatment.*)” (p. 7, 원문강조)라고 말한다. Baron(1977)의 정의를 이어서 Berkowitz(1993)는 감정적인 요인을 더 강조한 공격성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공격성은 “신체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로 나타나[원문강조] 어떤 행동(*some kind of behavior*[원문강조], either physical or symbolic, that is carried out with intention to harm someone.)” (p. 11, 원문강조)으로 정의되었다. 즉, 공격성의 정의는 관찰 가능한 결과에서 보이지 않는 의도와 감정까지 그 의미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공격성의 다양한 개념 중에서도 본 연구는 Berkowitz(1993)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Berkowitz(1993)의 정의는 다른 선행 연구자들 처럼 공격 행동과 의도를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선행 연구자들에 비해 감정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격성을 정의하고 있다. 즉, 사람의 공격성은 외부의 보상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생각을 기초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격성은 이러한 측면들 외에도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도 언제나 충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긴장과 스트

레스 발생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 보고되고 있으며(Berkowitz, 1993; Golan, 1978; Lazarus & Falkman, 1984; Rapoport, 1970),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격성은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고등학생의 공격성은 대인관계 기술을 떨어트림으로써 게임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났다(권재환, 2010). 또한, 공격성은 인터넷 중독을 통해서 청소년의 사이버관련 비행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이득연 외, 2006), 사이버폭력 피해행동과 가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김경은, 최은희, 2012). 이밖에도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야기하거나(김재엽, 이순호, 2011; 도기봉, 2008), 자살생각을 야기할 수도 있다(박재연, 정익중, 2010). 공격성이 성인기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더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수도 있다. 아동기부터 중년기까지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집단은 체포 경험, 교통위반, 배우자에 대한 공격, 이혼, 우울, 교육적·직업적 성취 실패 등의 문제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Huesmann et al., 2009).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성은 일생에 걸쳐 심리사회적인 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 요인을 탐구하고 밝혀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불안·우울과 공격성은 각각 내재화 차원과 외현화 차원을 대표하는 문제행동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3.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깨진 유리창” 효과로 불리오던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관한 초기 연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Wilson & Keling, 1982).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성인 지역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삼았었는데,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 & Mirowsky, 2001, 2009; Wilson & Keling, 1982).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네 주민들은 거리에 방치된 건물과 파손된 공공기물, 서로 싸우는 사람들 등을 시시때때로 목격하고, 범죄피해의 두려움과 소외감, 타인에 대한 불신 등을 나타내게 된다고 보고된다(Ross & Mirowsky, 1999, 2009; Siegel & Welsh, 2009). 이러한 경험은 곧잘 거주민의 불안과 우울, 분노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atkin & Aaron, 2003; Miller & Taylor, 2012; Ross & Mirowsky, 2001, 2009; Ross, 2000; Taylor & Hale, 1986). 동네 무질서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에 대해 거주민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문제행동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거주민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은 좀처럼 거주지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동네 환경은 중요한 삶의 맥락으로서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eshensel, 2010; Pearlin, 1999). 동네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반항성 장애와 품행장애, 약물남용과 약물의존, 자살생각, 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나타냈다(Aneshensel & Sucoff, 1996; Roberts et al., 2009; Stiffman et al., 1999). 또한, 물리적인 무질서는 다양한 적응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tler et al., 2012).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다양한 문제

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다양한 정신건강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불안·우울의 내재화 차원과 공격성의 외현화 차원으로 나눠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불안·우울과 관련해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그 관련 개념은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었다(Aneshensel & Sucoff, 1996; Browning, Soller, Gardner, & Brooks-Gunn, 2013; Butler et al., 2012; Miller & Taylor, 2012; Roberts et al., 2009; 강현아, 2010; 강희경 외, 2009; 김영미, 2011). 즉, 동네에 어두운 곳이 많거나 쓰레기가 많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 무질서가 인지될 때, 청소년은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아, 2010; 강희경 외, 2009). 이러한 무질서는 빈곤한 지역일수록 발생하기 쉽다(Aneshensel & Sucoff, 1996; 김영미, 2011).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지역일수록 주민 간에 싸움이 잦고, 공공장소와 공공기물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며, 각종 폭력 범죄 사건과 재산 피해가 난무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Aneshensel & Sucoff, 1996; Ross & Mirowsky, 1999; 김영미, 2011).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동네의 모습과 그러한 동네의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진다(Aneshensel & Sucoff, 1996; Butler et al., 2012; Miller & Taylor, 2012; Roberts et al., 2009; 김영미, 2011).

공격성에 관해서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다. 예컨대, 동네 문제는 무너져 내려서 방치되고 있는 건물, 소음과 범죄 등 위협하고 무질서한 동네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동네 환경은 청소년의 외현

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yles et al., 2009; Stiffman et al., 1999; Wheaton & Clarke, 2003). 무질서한 동네에서 청소년은 무기력감과 무규범, 불신 등을 느끼고 불안, 우울과 함께 분노를 보이며(Ross & Mirowsky, 2009), 분노의 발생은 공격성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erkowitz, 1993).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공격성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정적 관계에 대해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무질서한 동네로부터 느끼는 무기력감과 두려움, 주민들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 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한다. 이 중,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공격성에 대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만 조명해보았으며,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불안·우울의 관계는 물론 공격성과의 관계도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 과정의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다(Gutman et al., 2005; 김영미, 201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의 개념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 요구(social demands)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 요구는 어떠한 행동을 기대하는 규범적 유형(normative patterns)을 뜻한다(Lazarus & Folkman, 1984). 인간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체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사회체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사회체계 또한 사회제도를 통해 인간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과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Pearlin, 1983, 1989). 그리고 이러한 역할기대는 사회구조와 사회적 가치가 결합해서 형성된다(Lazarus & Folkman, 1984; Pearlin, 1983, 1989).

역할기대라는 관점에서 입각해보았을 때,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설명한 만성적 긴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 긴장은 매우 다양하고 측정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특정 역할군을 주제로 삼고 논의되곤 하였다(Pearlin, 1989). 가족이라는 사회 제도에서 부과한 역할과 지위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복잡한 대인관계가 수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Pearlin, 1989, 1999).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는 이러한 복잡한 역할기대 속에서 갈등(conflict), 불분명성(ambiguity), 과부하(overload)가 생겼을 때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Lazarus & Folkman, 1984). 부모와 청소년 간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모-청소년 갈등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부모-자녀 갈등, 부모 스트레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Conger et al., 1994; Davila et al., 2009; Hammen et al., 1987; Pearlin, 1989; Roberts et al., 2009; Rudolph et al., 2000; Timko, Stovel, Baumgartner, & Moos, 1995; 김영미, 2011; 우채영, 정현희, 2013). 둘째, 불분명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비일관적 훈육을 예로 들 수 있다(Lamper et al., 1989). 셋째, 역할 과부하와 관련된 요인으로 부모의 과잉기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우채영, 정현희, 2013). 이 밖에도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적의(parental hostility), 아동학대, 거친 훈육(harsh discipline)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Agnew & White, 1992; Conger et al., 1994; Daniels & Moos, 1990; Moos, 2002; Turner, 2010).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이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원의 한계와 복지의 저해가 나타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문제행동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추론하려면,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는 이미 논의한 바가 있다.

나머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관계,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 그리고 이 세 변수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의 정신건강을 거쳐서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로 조명해 보았을 때,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가족 내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통해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흘러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곧바로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가족 내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주민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Ross & Mirowsky, 2001, 2009; Ross, 2000; Taylor & Hale, 1986). 청소년의 부모는 동네의 거주민으로서, 동네의 스트레스를 많이 인지할수록 불안, 우울, 분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Gutman et al., 2005). 이러한 부모의 심리학적 디스트레스는 결국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Conger et al., 1994; Gutman et al., 2005). 또한, McLoyd(1990)는 이처럼 동네를 적대적이고 위협하다고 판단하는 부모일수록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를 스스로 멀리한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적대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Gonzales et al., 2011; Gutman et al., 2005; McLoyd, 1990; Roosa et al., 2005; 김영미, 2011).

둘째, 동네 무질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스트레스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Roosa et al.(2005)의 연구에서 범죄사건을 접하고 들을 일이 많고, 질이 낮은 위험한 동네일수록 부모-자녀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이웃 무질서가 높아질수록 부모-청소년 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지된 동네에 대한 측정은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김영미(2011)는 연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웃 무질서를 측정하였다. 청소년이 인지한 동네 무질서도 부모-청소년 관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영미, 2011).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같은 동네의 스트레스 요인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Milkie(2010)의 설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제 기능이 결여될수록 부모의 심리적인 자원이 고갈되어 양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또한 어지럽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난무하는 동네에서 불신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긴장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자는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역할 갈등, 역할 불분명성, 역할 과부하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Lazarus & Folkman, 1984). 이 셋은 서로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발생한 맥락을 구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첫째, 역할 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다. Deng et al.(2006)은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한 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Miller와 Taylor(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한 갈등은 우울 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행할수록 자녀와 의사와 충돌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azarus & Falkman, 1984).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발생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수행한 한계가 있다.

둘째, 역할 불분명성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다. 국외연구에서 부모의 비밀관적인 훈육은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mpers et al., 1989).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의 비밀관적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묘연, 2004).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Lazarus & Falkman, 1984), 청소년은 많이 혼란스러워하며 문제행동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할의 불분명성은 문제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는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와 불안·우울, 공격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역할과부하와 관련된 요인으로 부모의 공부압력을 예로 들 수 있다.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부모의 공부압력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공격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채영과 정현희(2013)의 연구에서도 공부독촉과 관련된 부모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의 넘어서는 것을 부모가 요구했을 때(Lazarus & Falkman, 1984), 청소년은 우울해지고 공격성을 띠는 것을 보여준다. 역할 과부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공격성과 우울에 대해 각각 살펴본 성과를 거두었으나, 측정도구의 질문이 대부분 공부에 관한 것으로, 폭넓은 주제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 밖의 부모-자녀 관계 관련 스트레스 요인도 자녀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 예컨대, 아동학대는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chi, Perez, & Tyson, 2010; 김진희, 2010; 이은주, 2010; 좌현숙, 오승환, 2011; 허묘연, 2004). 또한, 부모의 적의와 거친 양육방식도 청소년의 내재화 증상과 외현화 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et al., 1994; Gonzales et al., 2011).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원의 한계와 복지의 저해를 느낀 청소년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김성경(2008)은 부모 스트레스가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미(2011)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청소년의 불안, 우울, 위축을 비롯한 심리적인 부적응을 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Roberts et al.(2009)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불안·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만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 이 또한 청소년의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imko et al., 1995).

이상의 선행연구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에서도 내재화 문제행동, 불안·우울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없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자녀 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김영미(2011)는 부모-청소년 관계 스트레스가 이웃무질서와 심리적인 부적응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하지만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청소년 스

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불안·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요약하면, 그동안의 연구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능성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불안·우울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제가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격성도 정신건강의 한 차원으로 삼고,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3.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들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외에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은 매우 많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영향요인을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된 요인, 심리학적 요인, 관계적 요인, 그 밖의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스트레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정신건강의 불평등을 유발하는데, 성별, 소득, 가족구조, 부모학력 등으로 볼 수 있다(Aneshensel, 2010; Avison, 1999, 2010; Menaghan, 2010; Pearlin & Lieberman, 1979; Pearlin et al., 1981; Pearlin, 1989, 1999; Turner, 2010). 이러한 변수들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수준은 달라지며, 일부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eshensel & Sucoff, 1996; Roberts et al., 2009; Timko et al., 1995; Wickrama & Bryant, 2003; Wickrama, Merten, & Elder, 2005; 강현아, 2010; 고정자, 2005; 김성경, 2008; 김은이, 오경자, 2006; 김희윤, 2010; 박진경, 도현심, 2001; 신정아, 황혜원, 2006; 오승환, 2006; 이은주, 2010; 좌현숙, 2010).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Butler et al., 2012; 김세원, 2009). 한편, 남자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여자보다 외현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성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yers, Bates, Pettit, & Dodge, 2003; Karriker-Jaffe et al., 2012; 신정아, 신혜원, 2006).

둘째, 소득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깊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가족일수록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나(Aneshensel & Sucoff, 1996; Butler et al., 2012, Roberts et al., 2009; Wickrama & Merten et al., 2005; 강현아, 2010; 강희경 외, 2009),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좌현숙, 2010). 한편, 빈곤한 가족일수록 청소년은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셋째, 가족구조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ckrama & Merten et al., 2005; 윤은경, 신성희, 2013).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부자가족과 조손가족 청소년이 모자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은경, 신성희, 2013). 한편, 김세원(2009)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학력과 직업적 지위를 포함한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지

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yers et al., 2003; Lipman & Offord, 1997; 박현선, 1998).

다섯째, 부모취업여부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사회경제적인 자원을 생성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Menaghan, Kowaleski-Jones and Mott(199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취직상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취직상태일 때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낮아지고(박다혜, 장숙량, 2013),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성별, 소득, 가족구조, 부모학력, 부모취업여부를 통제하고자하며, 소득은 더 구체적으로 빈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욕구소득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심리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은 매우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를 꼽자면 자존감, 자기통제, 과거 문제행동이 있다. 이 중, 자존감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주요 자원으로 거의 빠짐없이 언급된 적이 있어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Pearlin, 1989, 1999). 자기통제의 경우,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이론적 전제가 다른 통제모델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스트레스 과정을 타당하게 살펴보기 위해선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Agnew & White, 1992; Eitle & Turner, 2003; Kornhauser, 1978). 과거 문제행동의 경우 발달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 발달단계의 산물로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

첫째, 자존감은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불안·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berts et al., 2009; 김성경, 2008; 박현선, 1999; 오영경, 이형실, 2010; 신정이, 황혜원, 2006; 좌현숙, 2010),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증상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주리, 2008).

둘째, 자기통제는 개인의 내적 통제로서(Gottfredson & Hirschi, 1990), 자녀의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있다.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정자, 2005; 김세원,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오영경, 이형실, 2010),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증상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김세원, 2009; 오영경, 이형실, 2010; 이주리, 2008). 그러나 김세원(2009)의 연구에서 초기에 높은 자기통제를 보였던 집단은 이후에 자기통제가 공격성 및 불안·우울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거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현재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울 경험은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che, Ghazarian, Little, & Leventhal, 2011; Rueter et al., 1999), 과거 외현화 문제행동은 현재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heaton & Clarke, 2003).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자존감과 자기통제만을 통제하였다. 자존감과 자기통제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어서 채택되었다. 이 중에서도 자존감은 스트레스 과정에서 대표적인 자원으로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보고된 바가 있다(Pealin, 1989, 1999; 김성경, 2008).

3) 관계적 요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가족요인과 친구요인, 그 밖의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가족요인으로 가족갈등과 부부갈등, 부모애착, 부모감독을 꼽아볼 수 있으며, 친구요인은 친구지지와 비행친구 수로 꼽아볼 수 있다. 그 밖의 요인은 교사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은 매우 많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가족 갈등이 있다. 가족갈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arriker-Jaffe et al., 2012).

둘째, 부부갈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불안·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는 악화되었고(오영경, 이형실, 2010; 이은주, 2010; 좌현숙, 2010;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 공격성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10; 차정은 외, 2009).

셋째, 부모애착이 있다. 부모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를 뜻하는데, 자녀는 이러한 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동을 배울 수 있다(Hirschi, 2002). 일반적으로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불안·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나(박현선, 1998; 이은주, 2010), 일부 중단연구에서는 이 두 요인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이 완만하게 불안·우울의 변화율을 설명하였다(김세원, 2009; 좌현숙, 2010). 한편, 공격성과 관련해서 부모-자녀 간의 유대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Karriker-Jaffe et al., 2012; 박현선, 1998).

넷째, 부모감독도 부모애착의 일환으로(Hirschi, 2002),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감독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불안·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eballos, Ramirez, Hearn, & Maltese, 2003; 고정자, 2005; 이은주, 2010; 정지영, 김종남, 2011; 좌현숙, 2010). 또한, 부모감독이 증가하면 청소년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yers et al., 2003; 고정자, 2005; 박진경, 도현심, 2001; 이은주, 2010).

다섯째, 친구지지가 있다. 친구 지지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경, 2008).

여섯째, 비행친구 수가 있다.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osa et al., 2005; 김세원, 2009; 김은이, 오경자, 2006; 노언경, 홍세희, 2009;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오영경, 이형실, 2010). 그러나 비행친구가 초기부터 많았던 집단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에 비행친구 수가 부적으로 공격성의 변화율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세원, 2009). 또한, 비행 성향을 보이는 친구가 많이 있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이, 오경자, 2006; 오경자 외, 2005; 오영경, 이형실, 2010).

일곱째, 교사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권재환(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노필순과 윤혜미(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불안·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부부갈등, 부모애착, 부모감독, 비행친구 수를 통제하여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요인들은 불안, 우울, 공격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채택되었다.

4) 그 밖의 요인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학적 요인, 관계적 요인 외에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경제적인 어려움(Lempers et al., 1989), 폭력피해 경험과 폭력피해 두려움(강현아, 2010), 일상생활 스트레스(강희경 외, 2009; 김성경, 2008; 최희철, 김옥진, 2009), 학교적응과 지역범죄율(좌현숙, 2010) 등은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관련해서도 어머니의 우울, 아동기의 스트레스적 사건(Wheaton & Clarke, 2003), 동네의 지역수급율과 지역한부모가구율(Karriker-Jaffe et al., 2012; 좌현숙, 2010)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특정 동네 거주 경험은 자녀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비교적 덜 빈곤한 지역으로 이주한 가족의 초기 청소년은 불안·우울 수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nthal & Brooks-Gunn, 2003). 동일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Wheaton & Clarke, 2003),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영구임대주택 단지인 경우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초기 청소년의 불안·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운, 2010).

또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데(좌현숙, 2010), 최근 스트레스 과정에서 자원으로 언급되고 있는 집합적 효능성(collective efficacy)과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Foster & Brooks-Gunn, 2009). 집합적 효능성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실현하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뜻하는데(Sampson et al., 1997), 집합적 효능성의 하위 요소들은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eshensel & Sucoff, 1996; Browning et al., 2013; 김진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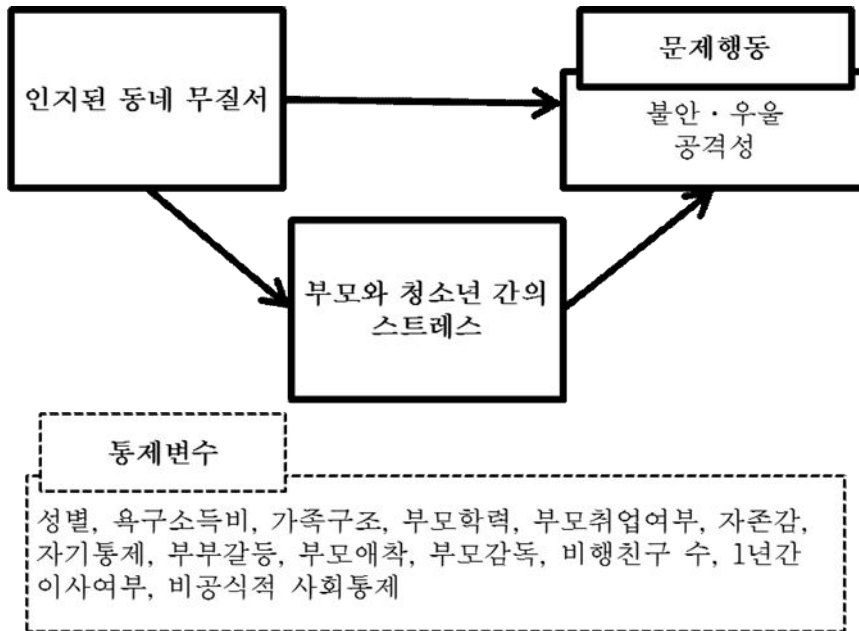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제하기로 하고, 지역거주 관련 요인은 2차 자료상의 한계로 1년간 이사여부로 통제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이 두 요인은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공격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서 통제변수로 채택되었다.

요약하면, 많은 요인들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타당성과 연구모델의 간명성을 위하여 주요한 몇 가지 요인만을 통제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성별, 욕구소득비, 가족구조, 부모학력, 부모취업여부, 자존감, 자기통제, 부부갈등, 부모애착, 부모감독, 비행친구 수, 1년간 이사여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제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

트레스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함으로써
주요 스트레스 요인 간의 전이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그림 2>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그림 2>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1]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1]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2]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적 통제의 방법의 일종인 회귀분석으로 외적 변량을 통제하는 양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살펴본다. 해당 자료는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패널 자료이다. 또한, 중도탈락자가 생긴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중학교 2학년을 최초 표본으로 삼고, 총 6번을 반복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것은 4차년도 자료다.

2차 자료이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이 자료는 2003년 시점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모집단으로 삼고 있다. ‘2003년 4월 1일 기준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중학교가 표본추출 틀로 사용되었으며, 층화 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학교와 학급을 추출하였다. 1차 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3,697명과 그들의 보호자의 쌍이 표본이었으며, 4차 년도에서는 2006년에 조사한 3,077명의 청소년과 부모가 표본이었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1) 불안·우울

불안·우울의 구성체는 불안의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특징과 더불어, 정서적으로는 슬픔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Arnett, 2007; Ollendick & Sander, 2012; Steinberg, 199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불안·우울 척도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6문항을 합산해서 불안·우울 변수를 만들 것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우울 정도가 심한 것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831로 나타났다.

2) 공격성

공격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로 수행되는 다양한 행동을 말한다(Berkowitz, 199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6)가 번안한 것에서 신체적 공격성의 4개 문항과 분노의 2개 문항으로 공격성 척도를 개발하였다(노연경, 홍세희, 2009, 재인용).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

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청소년이 직접 대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이다. Cronbach’ s alpha 값은 .771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인지된 동네 무질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사회통제가 부식된 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oss & Mirowsky, 1999). Ross와 Mirowsky(1999, 2001)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측정하기 위해 21개 문항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를 4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강현주, 노충래, 2012). 총 4개의 문항은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묘사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우리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가 있다. 각 문항은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중 하나를 택해서 보고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본 연구자는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인지된 동네 무질서 변수를 생성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s alpha 값은 .781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자원과 복지의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긴장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부모관련 일상적 긴장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총 4문항 척도가 되었다. 문항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그런 적 없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 문항을 합해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변수를 생성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853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학적 요인, 관계적 요인, 그 밖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조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사회경제적 지위

(1) 성별

성별은 ‘여자’를 ‘1’ 값으로 처리해서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다.

(2) 욕구소득비

욕구소득비는 가구 월평균 소득을 총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에 로그를 취하여 생성되었다. 이 중, 총 가구원수는 동거하

는 부모와 보호자 수, 형제자매 수, 친척 수, 조부모 수의 합으로 계산되었고, 최저생계비에는 2006년 기준 가구원별 최저생계비가 반영되었다. 반영된 2006년 기준 가구원별 최저생계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418,309원, 2인 가구는 700,849 원, 3인 가구는 939,849원, 4인 가구는 1,170,422원, 5인 가구는 1,353,242 원, 6인 가구는 1,542,382원, 7인 가구는 1,731,522원, 8인 가구는 1,920,662원, 9인 가구는 2,298,942원으로 처리되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2006).

(3) 가족구조

가족구조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지 청소년에게 물어보는 문항에서 양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를 ‘1’ 값으로 처리하여 더미 변수를 형성하였다.

(4) 부모학력

부모학력은 ‘무학’ (1점), ‘초등학교’ (2점), ‘중학교’ (3점), ‘고등학교’ (4점), ‘전문대’ (5점), ‘대학교’ (6점), ‘대학원 석사’ (7점), ‘대학원 박사’ (8점)로 부와 모에게 각각 물어본 것으로 측정되었다.

(5) 부모취업여부

부모의 취업 여부는 부모에게서 확보한 부모의 직업 분류 변수를 ‘무직’ (1점), ‘직업있음’ (0점)의 더미변수를 생성해서 사용하였다.

1) 심리학적 요인

(1) 자존감

자존감의 측정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Rosenberg(1969)의 자존감 척도를 참고해서 개발한 척도가 사용되었다(강현주, 노충래, 2012, 재인용). 구체적인 질문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총 6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청소년이 응답하도록 설계되어있으며, 이 중 3개 문항은 역채점 처리되었다. 본 연구자는 총 6개 문항을 합산해서 자존감 변수를 생성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753으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이 개념화하고 Grasmick, Tittle, Bursik and Arneklev(1993)가 개발한 낮은 자기통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노언경, 홍세희, 2009).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낮은 자기통제를 설명하는 6가지 요인 가운데 신체활동 선호가 제외되고, 화 기질, 단순 과제 선호, 충동성, 위험 추구, 자기중심성에서 각 1개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인지적 영역에 1개 문항(“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이 추가되었다(노언경, 홍세희, 2009). 구체적으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본 연구자는 총 6개 문항을 모두 역채점하고 합산해서 자기통제 변수를 생성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강한 것이다. Cronbach' s alpha 값은 .682로 나타났다.

3) 관계적 요인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2문항으로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가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청소년이 직접 보고하였다. 총 2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이다. Cronbach' s alpha 값은 .807로 나타났다.

(2)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척도는 Hirschi(1969)가 개념화한 부모애착에서 비롯되었다(김준호, 이동원, 1996; 노언경, 홍세희, 2009, 재인용). Hirschi(2002)는 부모애착의 구성요소를 부모감독, 의사소통의 친밀성, 애정적 동일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김준호와 이동원(1996)은 의사소통의 친밀성과 애정적 동일시를 포함하여 부모애착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애착은 총 6문항으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청소년이 직접 보고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자는 총 6개 문항을 합산해서 부모애착 변수를 생성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강한 것이다. Cronbach' s alpha 값은 .891로 나타났다.

(3)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Hirschi(1969)의 부모애착을 기반으로 개발한 척도로 측정되었다(노언경, 홍세희, 2009, 재인용). 총 4문항 척도로 청소년이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 문항을 합해서 부모감독 변수를 생성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높은 것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880으로 나타났다.

(4) 또래요인

또래요인인 비행친구 수는 지난 1년 동안 비행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친한 친구 수 총합의 로그 값으로 측정되었다. 친구의 수를 물어보는 6개 문항은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개발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비행 행동 항목은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무단결석” 등이 있다. 본 연구자는 각 항목의 친구의 수를 합해서 비행친구 수를 생성하였다.

4) 그 밖의 요인

(1) 1년간 여부

1년간 이사여부는 ‘이사한 적 있음’ (1점)과 ‘이사한 적 없음’ (0점)으로 처리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4차년도 데이터’의 동 단위 지역변수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3차년도 데이터’의 동 단위 지역변수를 빼 값에서, ‘1’ 이상의 절댓값이 발생하면 그 값은 ‘1’로 재입력되었다.

(2) 비공식적 사회통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Hirschi(1969)의 애착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개발한 척도로 측정되었다(강현주, 노충래, 2012, 재인용). 총 4개 문항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이 높은 것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말리거나 경찰서(선생님)에 신고할 것이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4문항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구분되는 차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 4문항을 합해서 비공식적 사회통제 변수를 생성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750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공격성이고, 주요 독립변수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욕구소득비, 가족구조, 부모학력, 부모취업여부, 자존감, 자기통제, 부부갈등, 부모애착, 부모감독, 비행친구 수, 1년간 이사여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있다.

첫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를 실시함으로써 주요 변수들에 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를 파악하고, Kline(2011)의 기준(왜도 3 미만, 첨도 8미만)으로 정규분포성을 점검하였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 간의 이변량 관계를 살펴보았다.

넷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 간의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모델들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Gujarati와 Porter(2010)의 상관관계(± 0.8) 기준과 Myers(1990)의 VIF 기준으로 진단하고, 공분산 유무는 Park-test로 확인하였다. 자기상관 문제는 Durbin-Watson d Test로 확인하였다(Gujarati & Porter, 2010).

다섯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을 살펴보았다.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문제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회귀분석을 통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모델에 추가 되었을 때,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은 모두 전체 3,077개 사례 중 이상치 1개가 삭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 1개 사례는 가구월평균소득에서 지나치게 높은 값(가구 월평균 소득 4,500만원)으로 나타나 삭제되었다. 또한, 무응답은 시스템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참여자인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5-1>과 같다.

<표 5-1>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76)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541	50.1	
	여자	1535	49.9	
가족구조	양부모가족	2846	92.5	
	한부모가족	207	6.7	
	기타	8	.3	
	무응답	15	.5	
부모학력	아버지	초등학교 이하	119	3.9
		중학교	241	7.8
		고등학교	1368	44.5
		전문대	218	7.1
		대학교	874	28.4
		대학원 이상	195	6.3
		무응답	61	2.0
	어머니	초등학교 이하	131	4.3
		중학교	393	12.8
		고등학교	1781	57.9
		전문대	141	4.6
		대학교	509	16.5
		대학원 이상	43	1.4
		무응답	78	2.5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부모 취직여부	아	취직	2562		83.3
버		무직	117		3.8	
지		무응답	397		12.9	
어		취직	1486		48.3	
머		무직	1345		43.7	
니		무응답	245		8.0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98		3.2	
	100~199만 원		371		12.1	
	200~299만 원		750		24.4	
	300~399만 원		832		27.0	
	400만 원 이상		922		30.0	
	무응답		103		3.3	
1년간 이사여부	없음		2848		92.6	
	있음		116		3.8	
	무응답		112		3.6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가구 월평균 소득	320.75	164.77	.00	1500	1.64	6.28

조사 참여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3,076명 가운데 남자가 1,541명(50.1%), 여자가 1,535명(49.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는 양부모가족 2,846명(92.5%), 한부모가족 207명(6.7%), 기타 8명(.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 참여자의 대다수가 양부모가족임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아버지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119명(3.9%), 중학교가 241명(7.8%), 고등학교가 1,368명(44.5%), 전문대가 218명(7.1%), 대학교가 874명(28.4%), 대학원 이상이 195명(6.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131명(4.3%), 중학교 393명(12.8%), 고등학교 1,781명(57.9%), 전문대 141명(4.6%), 대학교 509명(16.5%), 대학원 이상 43명(1.4%)으로 나타났다.

부모취직여부도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아버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직 2,562명(83.3%), 무직 117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중에는 무직 1,345명(43.7%), 취직 1,486명(48.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월평균소득은 평균 320.75만원으로 ‘100만 원 미만’ 98명(3.2%), ‘100만원~199만 원’ 371명(12.1%), ‘200~299만 원’ 750명(24.4%), ‘300~399만 원’ 832명(27.0%), ‘400만 원 이상’ 922명(30.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 참여자 가구의 50%이상이 3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년간 이사여부를 살펴보면 이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2,848명(92.6%), 이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16명(3.8%)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이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5-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인지된 동네 무질서	9.95	3.11	4.00	20.00	.19	-.06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10.64	3.26	4.00	20.00	.10	-.07
불안·우울	16.04	4.60	6.00	30.00	.02	-.23
공격성	16.04	4.14	6.00	30.00	.07	.19

주요 변수인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불안·우울, 공격성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평균은 9.95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3.11로 타났다. 매개변수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평균은 10.64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3.2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불안·우울은 평균이 16.04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4.60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평균이 16.04, 표준편차는 4.14로 나타났다.

Kline(2011)의 기준을 따라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하려면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불안·우울, 공격성의 왜도 값을 살펴보면 절댓값이 .02에서 .19의 범위로 나타났고, 첨도의 절댓값도 .06에서 .23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분포는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전에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3>에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Gujarati와 Porter(2010)의 기준에 따르면 상관관계의 계수 값이 ± 0.8 로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표 5-3>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VIF 값도 모두 1이상 2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10을 넘는 값이 없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Myers, 1990).

둘째,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불안·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비행친구 수,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있었다. 독립변수인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불안·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r=0.262, p<0.001$)로 나타났으며,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높을수록 불안·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불안·우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r=0.303, p<0.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불안·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도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있었다. 독립변수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r=0.208, p<0.001$)를 보였으며, 청소년이 동네 무질서를 많이 인지할수록 공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공격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r=.259$, $p<.001$)로 나타났다.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r=.19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높아질수록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SEX	1																			
2. ITNR	-.047*	1																		
3. FS	.016	.195***	1																	
4. FLE	-.011	.393***	.116***	1																
5. MLE	-.016	.409***	.108***	.695***	1															
6. FE	-.008	.136***	.080***	.036	.044*	1														
7. ME	-.012	.060**	-.085**	-.049**	-.013	-.058**	1													
8. SE	-.062**	.085***	.043*	.076***	.068***	.027	-.054**	1												
9. SC	.031	.051**	.053**	.038*	.047*	.023	-.021	.245***	1											
10. IC	.014	-.096***	-.037*	-.107***	-.122***	-.018	3E-05	-.156***	-.148***	1										
11. PA	.116***	.126***	.053**	.115***	.122***	.065**	-.005	.264***	.137***	-.188***	1									
11. PS	.158***	.089***	.063***	.093***	.077***	.024	-.035	.212***	.145***	-.113***	.559***	1								
13. LOGDF	-.107***	-.063**	-.047**	-.057**	-.060**	-.043**	.040*	-.058**	-.219***	.069**	-.115***	-.145***	1							
14. MOVE	.036	.015	-.029	.020	.027	.004	-.007	-.017	.009	.011	.044*	.018	.038*	1						
15. ISC	.077***	-.016	.042*	-.018	-.017	.012	-.035	.121***	.117***	-.054**	.160***	.142***	-.066***	-.033	1					
16. PND	.060**	-.072***	-.020	-.070***	-.069***	-.035	-.057**	-.200***	-.199***	.149***	-.102***	-.098***	.133***	-.030	-.075***	1				
17. PAC	-.024	.053**	.063***	.079***	.073***	-.013	-.007	-.231***	-.191***	.192***	-.331***	-.189***	.063***	.014	-.018	.192***	1			
18. AD	.154***	-.040*	-.031	-.015	-.008	-.031	.041*	-.431***	-.262***	.183***	-.131***	-.088***	.092***	.015	-.053**	.262***	.303***	1		
19. AGG	-.012	-.017	-.004	-.005	-.004	.005	-.003	-.242***	-.424***	.169***	-.103***	-.130***	.181***	-.001	-.052**	.208***	.259***	.366***	1	

주. SEX: 성별(1=여자), ITNR: 육구소득비, FS: 가족구조(1=양부모가족), FLE: 아버지 학력, MLE: 어머니 학력, FE: 아버지 취업여부(1=취업), ME: 어머니 취업여부(1=취업), SE: 자존감, SC: 자기통제, IC: 부부갈등, PA: 부모애착, PS: 부모감독, LOGDF: 로그 비행친구 수, MOVE: 1년간 이사 여부(1=이사), ISC: 비공식적 사회통제, PND: 인지된 동네 무질서, PAC: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AD: 불안·우울, AGG: 공격성

* p<.05, **p<.01, *** p<.001 (양측검정)

제 3 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매개 효과 확인 방법에 따라 검증되었다.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들을 기초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연구가설이며,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과정과 관련되는 요인과 그 밖의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 욕구소득비, 가족구조, 부모 학력, 부모 취업여부, 자존감, 자기통제, 부부갈등, 부모애착, 부모감독, 비행친구 수, 비공식적 사회통제, 1년간 이사여부를 통제하였다. 이 중 성별, 가족구조, 부모 취업여부, 1년간 이사여부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살펴보았다. Park-test를 통해 오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d* Test로 자기상관 발생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든 통계치가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Gujarati & Porter, 2010).

1.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매개효과 확인 방법에 따라 첫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1-1]을 설계하였다.

[모형 1-1] ‘인지된 동네 무질서 → 불안·우울’ 모형

$$\hat{Y}_1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b_{13}X_{13} + b_{14}X_{14} + b_{15}D_{15} + b_{16}X_{16}$$

\hat{Y}_1 : 불안·우울

D_1 : 성별(0=남자, 1=여자)

X_2 : 육구소득비

D_3 : 가족구조(0=한부모가족 포함 기타 가족, 1=양부모가족)

X_4 : 아버지 학력

X_5 : 어머니 학력

D_6 : 아버지 취업여부(0=무직, 1=취업)

D_7 : 어머니 취업여부(0=무직, 1=취업)

X_8 : 자존감

X_9 : 자기통제

X_{10} : 부부갈등

X_{11} : 부모애착

X_{12} : 부모감독

X_{13} : Log 비행친구 수

X_{14} : 비공식적 사회통제

D_{15} : 1년간 이사여부(0=없음, 1=있음)

X_{16} : 인지된 동네 무질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 변수들을 통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5>와 같다.

[모형 1-1]의 모형 적합도인 F값은 58.67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이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275로 나타났다. 즉, [모형 1-1]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불안·우울 변량의 2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그 영향은 $\beta = .146$ 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동네의 무질서가 심한 것으로 인지할수록 불안·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네의 무질서를 많이 인지할수록 청소년의 불안·우울이 유발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Miller & Taylor, 2012; 강현아, 2010; 강희경 외, 2009). 이에 따라 [연구가설 1-1]이 지지되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 가운데 자존감($\beta = -.359$, $p < .001$)과 자기통제($\beta = -.125$, $p < .001$)는 불안·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가($\beta = .142$, $p < .001$), 부부갈등($\beta = .093$, $p < .001$)이 높아지고 비행친구 수($\beta = .036$, $p < .001$)가 높아질수록 불안·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두 개이므로,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설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2]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1-2]를 설계하였다.

[모형 1-2] ‘인지된 동네 무질서 → 공격성’ 모형

$$\widehat{Y}_2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b_{13}X_{13} + b_{14}X_{14} + b_{15}D_{15} + b_{16}X_{16}$$

\widehat{Y}_2 : 공격성

D_1 : 성별(0=남자, 1=여자)

X_2 : 욕구소득비

D_3 : 가족구조(0=한부모가족 포함 기타 가족, 1=양부모가족)

X_4 : 아버지 학력

X_5 : 어머니 학력

D_6 : 아버지 취업여부(0=무직, 1=취업)

D_7 : 어머니 취업여부(0=무직, 1=취업)

X_8 : 자존감

X_9 : 자기통제

X_{10} : 부부갈등

X_{11} : 부모애착

X_{12} : 부모감독

X_{13} : Log 비행친구 수

X_{14} : 비공식적 사회통제

D_{15} : 1년간 이사여부(0=없음, 1=있음)

X_{16} : 인지된 동네 무질서

[모형 1-2] ‘인지된 동네 무질서 → 공격성’ 모형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들을 통제하고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투입한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F=48.616$ 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 1-2]의 수정된 설명력은 .23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변수와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포함하는 [모형 1-2]가 공격성의 변량을 23.8%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p<.001$), 그 영향은 $\beta=.117$ 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네의 무질서와 관련된 현상을 많이 접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 행동이 심화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Caughy et al., 2007; Gayles et al., 2009; Stiffman et al., 1999; Wheaton & Clarke, 2003). 이에 따라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었다.

한편, 통제변수 가운데 부부갈등($\beta=.075$, $p<.001$)과 비행친구 수($\beta=.074$, $p<.001$)는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자존감($\beta=-.141$, $p<.001$)과 자기통제($\beta=-.340$, $p<.001$), 부모감독($\beta=-.053$, $p<.05$)은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2.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매개효과 확인 방법 중, 두 번째 단계로서 본 절에서 검증하려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으로 [모형 2]를 설계하였다.

[모형 2] ‘인지된 동네 무질서 →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모형

$$\widehat{X}_{17} = a + b_1 D_1 + b_2 X_2 + b_3 D_3 + b_4 X_4 + b_5 X_5 + b_6 D_6 + b_7 D_7 + b_8 X_8 + b_9 X_9 + b_{10} X_{10} + b_{11} X_{11} + b_{12} X_{12} + b_{13} X_{13} + b_{14} X_{14} + b_{15} D_{15} + b_{16} X_{16}$$

\widehat{X}_{17} :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D_1 : 성별(0=남자, 1=여자)

X_2 : 욕구소득비

D_3 : 가족구조(0=한부모가족 포함 기타 가족, 1=양부모가족)

X_4 : 아버지 학력

X_5 : 어머니 학력

D_6 : 아버지 취업여부(0=무직, 1=취업)

D_7 : 어머니 취업여부(0=무직, 1=취업)

X_8 : 자존감

X_9 : 자기통제

X_{10} : 부부갈등

X_{11} : 부모애착

- X_{12} : 부모감독
- X_{13} : Log 비행친구 수
- X_{14} : 비공식적 사회통제
- D_{15} : 1년간 이사여부(0=없음, 1=있음)
- X_{16} : 인지된 동네 무질서

[모형 2]는 통제변수들이 통제되고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투입된 모형이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F값이 42.89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수정된 R^2 의 값은 .216로, 통제변수와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포함한 [모형 2]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변량의 2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β 값은 .125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증가할수록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이 동네 무질서를 비롯한 동네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걱정과 우울을 유발하여 부모-자녀 간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Gutman et al., 2005; Roosa et al., 2005; 김영미, 2011). 이에 따라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 외에도 몇 가지 통제변수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은 욕구소득비($\beta = .050$, $p < .05$), 아버지 학력($\beta = .074$, $p < .01$), 어머니 학력($\beta = .053$, $p < .05$), 부부갈등($\beta = .109$, $p < .001$), 비공식적 사회통제($\beta = .061$, $p < .01$)가 있다. 한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이는 통제변수로 자존감($\beta = -.101$, $p < .001$), 자기통제($\beta = -.103$, $p < .001$), 부모애착($\beta = -.334$, $p < .001$)이 있었다.

<표 5-4>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모형 2]		
	인지된 동네 무질서 →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B	S.E.	Beta
성별 (1=여자)	.049	.120	.008
육구소득비	.114	.046	.050*
가족구조 (1=양부모가족)	.513	.540	.017
아버지 학력	.187	.063	.074**
어머니 학력	.164	.078	.053*
아버지 취업여부 (1=취업)	-.085	.299	-.005
어머니 취업여부 (1=취업)	-.110	.117	-.017
자존감	-.090	.017	-.101***
자기통제	-.085	.016	-.103***
부부갈등	.207	.036	.109***
부모애착	-.244	.016	-.334***
부모감독	.008	.022	.008
Log 비행친구 수	-.001	.003	-.005
비공식적 사회통제	.061	.019	.061**
1년 내 이사여부 (1=이사)	.416	.298	.025
인지된 동네 무질서	.129	.020	.125***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Constant	14.141		
F	42.896***		
R Square	.221		
Adjusted R Square	.216		

* p<.05, **p<.01, *** p<.001

3.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매개효과 확인 방법 중, 세 번째 단계를 달성하기 위해 본 절에서 검증하려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1]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3-1]을 설계하였다.

[모형 3-1]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불안·우울

$$\hat{Y}_1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b_{13}X_{13} + b_{14}X_{14} + b_{15}D_{15} + b_{17}X_{17}$$

\hat{Y}_1 : 불안·우울

D_1 : 성별(0=남자, 1=여자)

X_2 : 욕구소득비

D_3 : 가족구조(0=한부모가족 포함 기타 가족, 1=양부모가족)

X_4 : 아버지 학력

X_5 : 어머니 학력

D_6 : 아버지 취업여부(0=무직, 1=취업)

D_7 : 어머니 취업여부(0=무직, 1=취업)

X_8 : 자존감

X_9 : 자기통제

X_{10} : 부부갈등

X_{11} : 부모애착

- X_{12} : 부모감독
- X_{13} : Log 비행친구 수
- X_{14} : 비공식적 사회통제
- D_{15} : 1년간 이사여부(0=없음, 1=있음)
- X_{17} :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모형 3-1]은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 3-1]의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 3-1]의 모형적합도는 $F=62.317$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 3-1]의 설명력은 .287로, 통제변수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형 3-1]은 불안·우울의 변량 2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1]에서 추가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β 값은 $p<.001$ 수준에서 .200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청소년 간에 스트레스가 심화될수록 청소년은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 청소년 간의 불일치,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 불분명한 훈육 등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일치한다(Lempers et al., 1989; Rueter et al., 1999; 김성경, 2008). 이에 따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세 번째 단계가 충족되었고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었다.

이 밖에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통제변수는 성별, 자존감, 자기통제, 부부갈등, 부모애착, 비행친구 수가 있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beta=.149$, $p<.001$), 부부갈등이 심할수록($\beta=.080$, $p<.001$), 부모애착이 높을수록($\beta=.045$, $p<.05$), 비행친구가 많을수록($\beta=.048$, $p<.01$), 청소년의 불안·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존감($\beta=-.355$, $p<.001$)과 자기통제($\beta=-.120$, $p<.001$)

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우울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3-2]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은 [모형3-2]를 따른다.

[모형 3-2]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공격성

$$\hat{Y}_2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b_{13}X_{13} + b_{14}X_{14} + b_{15}D_{15} + b_{17}X_{17}$$

\hat{Y}_2 : 공격성

D_1 : 성별(0=남자, 1=여자)

X_2 : 욕구소득비

D_3 : 가족구조(0=한부모가족 포함 기타 가족, 1=양부모가족)

X_4 : 아버지 학력

X_5 : 어머니 학력

D_6 : 아버지 취업여부(0=무직, 1=취업)

D_7 : 어머니 취업여부(0=무직, 1=취업)

X_8 : 자존감

X_9 : 자기통제

X_{10} : 부부갈등

X_{11} : 부모애착

- X_{12} : 부모감독
- X_{13} : Log 비행친구 수
- X_{14} : 비공식적 사회통제
- D_{15} : 1년간 이사여부(0=없음, 1=있음)
- X_{17} :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모형 3-2]는 통제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3-2]의 모형 적합도는 $F=50.624(p<.001)$ 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 는 .246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형 3-2]는 공격성 변량의 2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2]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beta = .15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 공격성을 비롯한 외현화 문제를 선행연구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Conger et al., 1994; Gonzales et al., 2011; 박현선, 1998; 이은주, 2010). 이에 따라 [연구가설 3-2]가 지지되었다.

그 밖에 청소년의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통제변수는 자존감, 자기통제, 부부갈등, 부모애착, 부모감독, 비행친구 수가 있었다. 이 중 청소년의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부갈등($\beta=.064$, $p<.01$), 부모애착($\beta=.067$, $p<.01$), 비행친구 수($\beta=.084$, $p<.001$)가 있었고, 부적인 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존감($\beta=-.138$, $p<.001$)과 자기통제($\beta=-.336$, $p<.001$), 부모감독($\beta=-.055$, $p<.05$)이 있었다.

4. 인지된 동네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매개효과 확인 방법 중,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달성하기 위해 본 절에서 검증하려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4-1]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1]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4-1]을 설계하였다.

[모형 4-1]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불안·우울

$$\hat{Y}_1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b_{13}X_{13} + b_{14}X_{14} + b_{15}D_{15} + b_{16}X_{16} + b_{17}X_{17}$$

\hat{Y}_1 : 불안·우울

D_1 : 성별(0=남자, 1=여자)

X_2 : 욕구소득비

D_3 : 가족구조(0=한부모가족 포함 기타 가족, 1=양부모가족)

X_4 : 아버지 학력

X_5 : 어머니 학력

D_6 : 아버지 취업여부(0=무직, 1=취업)

D_7 : 어머니 취업여부(0=무직, 1=취업)

X_8 : 자존감

X_9 : 자기통제

- X_{10} : 부부갈등
- X_{11} : 부모애착
- X_{12} : 부모감독
- X_{13} : Log 비행친구 수
- X_{14} : 비공식적 사회통제
- D_{15} : 1년간 이사여부(0=없음, 1=있음)
- X_{16} : 인지된 동네 무질서
- X_{17} :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모형 4-1]은 통제변수와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투입한 모형이다. 따라서 [모형 4-1]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Sobel test로 확인하기 전에 실시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모형 4-1]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5〉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에 대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모형 1-1] 인지된 동네 무질서 → 불안·우울			[모형 3-1]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불안·우울			[모형 4-1]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불안·우울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성별 (1=여자)	1.298	.163	.142***	1.363	.161	.149***	1.285	.160	.141***
육구소득비	.035	.063	.011	-.012	.062	-.004	.006	.062	.002
가족구조 (1=양부모가족)	-.102	.734	-.002	-.357	.728	-.008	-.234	.721	-.006
아버지 학력	-.003	.086	-.001	-.07	.085	-.02	-.052	.084	-.015
어머니 학력	.143	.106	.033	.096	.105	.022	.101	.104	.023
아버지 취업여부 (1=취업)	-.383	.407	-.016	-.424	.403	-.018	-.361	.399	-.016
어머니 취업여부 (1=취업)	.155	.160	.017	.228	.158	.025	.183	.157	.020
자존감	-.451	.024	-.359***	-.446	.023	-.355***	-.427	.023	-.341***
자기통제	-.146	.022	-.125***	-.14	.022	-.120***	-.124	.022	-.106***
부부갈등	.249	.048	.093***	.214	.048	.080***	.196	.048	.073***
부모애착	-.020	.022	-.019	.046	.023	.045*	.043	.023	.042
부모감독	.018	.030	.012	.014	.03	.01	.016	.030	.011
Log 비행친구 수	.008	.004	.036*	.01	.004	.048**	.008	.004	.037*
비공식적 사회통제	.018	.025	.012	-.004	.025	-.003	.002	.025	.001
1년간 이사여부 (1=이사)	.177	.406	.008	-.044	.402	-.002	.069	.399	.003
인지된 동네 무질서	.214	.027	.146***				.181	.026	.124***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282	.027	.200***	.257	.027	.182***
Constant	24.051			22.932			20.41		
F	58.675***			62.317***			62.542***		
R Square	.279			.292			.305		
Adjusted R Square	.275			.287			.300		
R Square Change							.026***		

* p<.05, **p<.01, *** p<.001

[모형 4-1]의 모형적합도는 $F=62.542$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 4-1]의 설명력은 .300으로, [모형 4-1]은 불안·우울의 변량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2 의 변화량 .026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1]에서 추가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β 값은 $p<.001$ 수준에서 .182로 나타났다. 즉,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불안·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1-1]에서 $\beta=.146$ 이었던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모형 4-1]에서 $\beta=.124$ 로 줄어들었지만 불안·우울과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이 밖에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통제변수는 성별, 자존감, 자기통제, 부부갈등, 비행친구 수가 있었다. 남자보다 여자가($\beta=.141$, $p<.001$), 부부갈등이 심할수록($\beta=.073$, $p<.001$), 비행친구가 많을수록($\beta=.037$, $p<.05$), 청소년은 불안·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존감($\beta=-.341$, $p<.001$)과 자기통제($\beta=-.106$, $p<.001$)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우울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4-1]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전에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를 재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6$, $p<.000$). 둘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5$, $p<.001$). 셋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0$, $p<.001$). 넷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통제하고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추가된 모델에서 부모-

청소년 스트레스는 여전히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beta=.182, p<.001$). 또한, 첫 번째 단계에서 .146이던 인지된 동네무질서의 β 값이 .124로 감소하였고,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불안·우울과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p<.001$).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6>과 같이 나왔다. Sobel test 검증 결과, 검증 값은 5.398로 나타났고, 이 검증 값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 매개관계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감소한 β 값이 약 .022이기 때문에 매우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동네의 무질서한 특징에 대한 경험이 부모와 청소년간의 스트레스를 통해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김영미, 2011). 이에 따라 [연구가설 4-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6>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에 대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변수			X → M		M → Y		Sobel Test
X	M	Y	B	S.E.	B	S.E.	Test Statistic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불안·우울	.129	.020	.257	.027	5.398***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검증하고자하는 연구가설은 [연구가설 4-2]이다.

[연구가설 4-2]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2]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4-2]를 설정하였다.

[모형 4-2]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공격성

$$\hat{Y}_2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 b_{10}X_{10} + b_{11}X_{11} + b_{12}X_{12} + b_{13}X_{13} + b_{14}X_{14} + b_{15}D_{15} + b_{16}X_{16} + b_{17}X_{17}$$

\hat{Y}_2 : 공격성

D_1 : 성별(0=남자, 1=여자)

X_2 : 욕구소득비

D_3 : 가족구조(0=한부모가족 포함 기타 가족, 1=양부모가족)

X_4 : 아버지 학력

X_5 : 어머니 학력

D_6 : 아버지 취업여부(0=무직, 1=취업)

D_7 : 어머니 취업여부(0=무직, 1=취업)

X_8 : 자존감

X_9 : 자기통제

X_{10} : 부부갈등

X_{11} : 부모애착

X_{12} : 부모감독

X_{13} : Log 비행친구 수

X_{14} : 비공식적 사회통제

D_{15} : 1년간 이사여부(0=없음, 1=있음)

X_{16} : 인지된 동네 무질서

X_{17} :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모형 4-2]는 통제변수와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투입한 상태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모형 4-1]과 마찬가지로 Sobel test 실시 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모형 4-2]의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4-2]의 모형 적합도는 $F=49.853(p<.001)$ 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2 는 .254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와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형 4-2]는 공격성 변량의 2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추가된 후, R^2 는 .016 정도 상승하였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였다.

[모형 4-2]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beta = .14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부모와 청소년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β 값은 [모형 2]에서 .117이었던 것이 [모형 4-1]에서 .099로 줄어들었으나,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정적인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남았다($p<.001$). 이에 따라 인지된 동네무질서가 증가할수록 공격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청소년의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통제변수는 자존감, 자기통제, 부부갈등, 부모애착, 부모감독, 비행친구 수가 있었다. 이 중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부갈등($\beta=.059, p<.01$), 부모애착($\beta=.064, p<.01$), 비행친구 수($\beta=.075, p<.001$)가 있었고, 부적인 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존감($\beta=-.126, p<.001$)과 자기통제($\beta=-.325, p<.001$), 부모감독($\beta=-.054, p<.05$)이 있었다.

<표 5-7>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모형 1-2] 인지된 동네 무질서 → 공격성			[모형 3-2]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공격성			[모형 4-2]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 공격성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성별 (1=여자)	-.011	.150	-.001	.036	.149	.004	-.020	.148	-.002
육구소득비	.003	.058	.001	-.031	.058	-.011	-.018	.057	-.006
가족구조 (1=양부모가족)	-.523	.676	-.014	-.705	.673	-.019	-.617	.669	-.016
아버지 학력	-.009	.079	-.003	-.056	.079	-.017	-.043	.078	-.013
어머니 학력	.145	.097	.037	.111	.097	.028	.115	.096	.029
아버지 취업여부 (1=취업)	.637	.375	.030	.607	.373	.029	.652	.371	.031
어머니 취업여부 (1=취업)	-.111	.147	-.014	-.059	.146	-.007	-.091	.146	-.011
자존감	-.159	.022	-.141***	-.156	.022	-.138***	-.143	.022	-.126***
자기통제	-.357	.020	-.340***	-.353	.020	-.336***	-.342	.020	-.325***
부부갈등	.180	.045	.075***	.155	.045	.064**	.143	.044	.059**
부모애착	.015	.020	.016	.062	.021	.067**	.060	.021	.064**
부모감독	-.068	.028	-.053*	-.071	.028	-.055*	-.070	.027	-.054*
Log 비행친구 수	.014	.004	.074***	.016	.003	.084***	.014	.003	.075***
비공식적 사회통제	.025	.023	.019	.009	.023	.007	.014	.023	.011
1년 내 이사여부 (1=이사)	.329	.374	.016	.172	.372	.008	.253	.370	.012
인지된 동네 무질서	.154	.025	.117***				.130	.024	.099***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201	.025	.158***	.183	.025	.144***
Constant	24.229			23.451			21.635		
F	48.616***			50.624***			49.853***		
R Square	.243			.251			.259		
Adjusted R Square	.238			.246			.254		
R Square Change							.016***		

* p<.05, **p<.01, *** p<.001

[연구가설 4-2] 또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매개 효과 확인방법을 점검하고 나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7, p<.001$). 둘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9, p<.001$). 셋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8, p<.001$). 넷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통제 한 후에도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144, p<.001$). 또한, [모형 1-2]에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β 값은 .117이었으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투입된 후 .099로 줄어들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p<.001$).

이러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8>와 같이 나타났다. Sobel test의 검증 값은 4.865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고, β 값이 .018정도만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매개관계는 매우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연구가설4-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8>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변수			X → M		M → Y		Sobel test
X	M	Y	B	S.E.	B	S.E.	Test Statistic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공격성	.129	.020	.183	.025	4.865***

* p<.05, **p<.01, *** p<.001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 보았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초점을 둔 이유는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의 성과에 기초한 것이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의하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동네 환경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의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문제행동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기제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와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에 답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고,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따랐다. 먼저,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Sobel test를 통해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가 포함된 모델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불안·우울에 관한 모델은 $F=62.542(p<.001)$, 공격성에 관한 모델은 $F=49.853(p<.001)$ 로 나타났다. 각 모델은 불안·우울을 30% 설명하고, 공격성을 2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두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또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p<.001$), [연구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로 예측한 바와 같이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가설 2]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의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1$),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가족 내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임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가설 3]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공격성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1$, $p<.001$),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가 지지되었다. 이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가설 4]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청소년의 매개효과를 밝혀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부분적으로 나타내었다($p < .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4-1]과 [연구가설 4-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적절한 모델임을 보여준다. 또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그대로 남음으로써,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 효과를 설명하는 데에도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매개관계에 관해서는 매우 부분적인 매개효과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이 변수들의 관계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 결과 논의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는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적용되었다. 이에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문제행동은 정신건강 결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불안·우울과 공격성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무질서를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불안·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자마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관해 각기 다른 용어를 쓰고 있긴 하나, 이를 국외 연구와 국내 연구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 연구에서 Latkin과 Curry(2003), Miller와 Taylor(2012)는 공공기물 파손, 오염, 폭력의 난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 걸인 등에 대한 동네 인식이 청소년의 우울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Roberts et al.(2008)는 연구에서는 소음, 범죄사건 등의 지역사회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걱정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Butler et al.(2012)은 거리의 쓰레기나 방치된 건물 등의 물리적인 무질서가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불안·우울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Aneshensel과 Sucoff(1996)도 주변 위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거주지역의 무질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영미, 2008; 강희경 외, 2009), 강현아(20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인지한 지역사회의 위험성은 불안과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 위축을 포함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서도 이웃 무질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2011).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불안·우울을 심화시킨다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중 몇몇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불안·우울의 정적 관계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함께 논의할 가치가 있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입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상세히 살펴봤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먼저, 강희경 외(2009)는 이웃환경 무질서가 가족의 빈곤과 상호작용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대한 관계를 조명해 주고 있다. 김영미(2008)의 연구에서도 거주 지역 무질서는 가족의 빈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정적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차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강현아, 2010), 실제 폭력 피해 경험(강현아, 2010) 등이 있는데, 지역 사회의 위협성은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을 설명하였다(강현아, 2010). 강희경 외(2009)의 연구에서는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불안·우울의 사이에 일상생활스트레스라는 이차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불안·우울의 관계에 아주 다양한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청소년이 동네 무질서를 높게 인지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몇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Wheaton과 Clarke(2003)의 연구에서 무질서로 묘사되는 동네 문제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무질서를 포함한 위험한 동네 환경은 반항성 장애나 품행장애와 같은 외현적인 정신장애 문제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eshensel & Sucoff, 1996; Stiffman et al., 1999) 이는 동네 주민이나 또래 친구들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청소년이 보고 학습한 결과로 해석된다(Roosa et al., 2003; Stiffman et al., 1999).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청소년은 동네 무질서에 많이 노출될수록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소외감 등으로 이어져서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Pearlin, 1999; Ross & Mirowsky, 1999, 2009; Ross, 2000).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입각해 보았을 때, 인지된 동

네 무질서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대부분의 통제변수보다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 결과에 입각해 보았을 때, 무질서한 동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개입할 때에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평화롭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관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김영미, 2011), 동네 위험 요인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Roosa et al., 2005), 동네 스트레스가 부모의 우울과 걱정을 통해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Gutman et al., 2005).

또한,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부모와 청소년 간에 갈등과 역할 모호성, 과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일으킨 부모의 불안과 우울은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Gutman et al., 2005;

Latkin & Aaron, 2003; Miller & Taylor, 2012; Ross & Mirowsky, 2001, 2009; Ross, 2000; Taylor & Hale, 1986). 한편으론 위험한 동네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부모가 엄격한 양육방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Gonzales et al., 2011).

정리하면,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발생한 긴장을 낮추기 위해선 인지된 동네 무질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3.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불안·우울과 공격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역할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청소년은 더 높은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몇몇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불일치와 갈등, 부모의 적의 등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관련 정신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한 연구(Conger et al., 1994; Deng et al., 2006; Rueter et al., 1999; 김영미, 2011), 부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김성경, 2008), 부모의 비일관적인 훈육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한 연구 등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Lempers et al., 1989).

둘째, 청소년의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청소년과 부모

간에 발생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적의와 거친 양육방식, 공부압력 등이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을 심화시켰다(Conger et al., 1994; Gonzales et al., 2011; 박현선, 1998).

본 연구의 결과를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에 입각해서 보면,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의 만성적 긴장으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통제변수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개입해야하는 관점을 제시해준다.

4.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문제행동의 매개관계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이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일차적·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한 Pearlin(1999)의 모델을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하려는 시도였다. 가설 검증 결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제행동의 불안·우울과 공격성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무질서가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통해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미(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청소년 관계 스트레스가 이웃 무질서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영미(2008)는 거주 지역 무질서가 부모의 신체적·언어적 학대, 부부 갈등 등의 가족 위험 요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인식을 형성하고, 그 결과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내었다. 강희경 외(2009)는 이웃환경 무질서가 부정적 가족사건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네 무질서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밝혀낸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청소년의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을 거치지 않고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청소년의 공격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주제로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Gayles et al., 2009; Wheaton & Clarke, 2003),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oosa et al., 2005; 김영미, 2011),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Conger et al., 1994; Gonzales et al., 2011; 박현선, 1998; 이은주, 2010)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현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라서 공격성에 대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독자적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 청소년 공격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밝혀냄으로써 보완할 수 있었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입각해 보았을 때,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동네 환경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인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동네의 환경으로서, 부모-자녀 관계라는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적 산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eshensel, 2010; Milkie, 2010; Pearlin, 1999; 김진희, 2010).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개입을 확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에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부분 매개하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도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는 이차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불안·우울과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동네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만이 아니라, 동네와 가족이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개입방법
과 예방방법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한 점과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함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활용하였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초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논의할 수 있었으며, 실증적으로도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전이 과정을 규명하는 것에 Pearlin(1999)의 모델은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활용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Pearlin이 1989년에 구상한 모델로, 1999년에 새롭게 수정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이전 모델과 달리 동네 환경을 독립된 영역에서 조명하였으며, 사회구조와 개인의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최근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중시적인 개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계에서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주제였고(김영미, 2011), 문제행동 중에서도 공격성에 관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로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Pearlin(1999)의 모델을 소개하고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를 밝혀낸 의의가 있다.

2. 실천적 함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해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와 연관된 동네 무질서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조직 사업은 지속되고 발전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동네 무질서와 관련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 간에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어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Brueggemann, 2006).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동네 주민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Ross & Mirowsky, 2001, 2009; Ross, 2000). 서로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동안의 무기력감

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Brueggemann, 2006).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 거주민들이 함께 정의하고, 이에 기초해서 조직을 형성하고 역할을 정해서 전략을 수행해야한다(Brueggemann, 2006). 주민들이 정의한 문제와 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마을 벽화 그리기, 마을 청소하기, 노후화된 공공시설 유지보수하기, 등하교 길 안전지킴이 배치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집단은 청소년 봉사단으로 조직화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전략을 수행하든 간에 동네 주민 간에 연대감을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 간에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법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될 필요가 있다(Brueggemann, 2006).

둘째, 인지된 동네 무질서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입이 동네 무질서의 악영향을 일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보다 높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는데, 이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개입영역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가족 상담, 가족캠프 등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시로 바쁜 청소년들이 많은 한국의 상황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기관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하는 문제로 매주 진행되는 곳은 많지 않다. 게다가 회기별로 부모-자녀 관계라는 동일 주제를 가지고 동일 사례에 개입하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 하지만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프로그

램을 실시 할 수 있다면 보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소년의 참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선 동일사례에 대한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명료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네 무질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네 무질서와 관련된 질문을 설문조사와 인터뷰 항목 등에 포함시켜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과 그 가족이 동네 무질서에 관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자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자문과 건의를 구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동네, 부모, 청소년에게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부모-청소년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하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였으나, 그럼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4차년도 데이터’는 7년 전의 자료로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변수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 2003년 당시엔 국내 양적연구의 역사가 짧은 상황이었고,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4차년도 데이터’에 활용된 많은 척도들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충분히 검증받지 못하고 사용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양한 요인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데(Gutman et al., 2005; Wheaton & Clarke,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진 못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데에는 과거 우울 경험(Roche et al., 2011; Rueter et al., 1999), 과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과 아동기의 스트레스적 사건(Wheaton & Clarke, 2003)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횡단 연구의 한계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본 연구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대부분의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본 연구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된 척도로 최신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관계를 반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 우울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다양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종류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변수들도 고려될 가치가 있다(Lempers et al., 1989; 강희경 외, 2009; 김성경, 2008; 최희철, 김옥진, 2009).

셋째,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단 연구를 통해서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방정식을 통해서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부모-청소년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자원간의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층 분석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징과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random effect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차이에 따른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초로 인지된 무질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 그리고 부모-청소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현아. (2010). 빈곤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327-348.
- 강현주, 노충래. (2012). 청소년 자아개념에 대한 지역효과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4), 101-129.
- 강희경, 김영미, 이은주. (2009).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정적 가족사건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179-204.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권재환. (2008). 아동, 청소년 상담 : 청소년의 게임중독,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9(2), 675-688.
- 권재환. (2010). 충동성, 공격성과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기술의 매개모형검증: 중고등학교급별 비교.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15(10), 87-98.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성경. (2008).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381-406.
-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2004). **청소년복지학**. 경기 파주: 집문당.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5.
- 김영미. (2008). 거주지역 무질서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29-50.
- 김영미. (2011). 이웃환경과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가족과

- 정의 매개효과와 성별간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18(11), 209-237.
- 김은이, 오경자. (2006).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381-396.
- 김재엽, 이순호. (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109-137.
- 김준호, 이동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연구보고서 No. 96-03). 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희. (2010). 연구논문 : 지역사회 집합적 효능감과 청소년 문제 행동의 관계: 학대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7(10), 135-160.
- 김희윤. (2010). **동네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노석준, 이동훈, 김인숙, 송연주. (2011).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ADHD, 우울,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4), 25-53.
- 노언경, 홍세희. (2009). 연구논문 : 준모수적 집단 중심 방법을 적용한 청소년기 초기의 공격성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관련요인 검증. **조사연구**, 10(3), 37-58.
- 노필순, 윤혜미. (2007).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과 사회적지지 및 문제행동. **학교사회복지**, -(12), 23-46.
- 도기봉. (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과 생태체계요인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0(2), 73-92.
- 박다혜, 장숙량. (2013).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667-26.
- 박미정, 김희순, 박소미, 최지혜. (2011).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 비

- 교. **아동간호학회지**, 17(4), 264-271.
- 박재연, 정익중.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2(-), 69-97.
- 박진경, 도현심. (2001). 어머니의 감독 (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박현선. (1998). 부모 - 자녀 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 사회적 문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1), 93-118.
- 박현선.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6. [http://library.mw.go.kr/Users/bogun/K/Go/PdfViewer.aspx?mastid=51538 &pdf_url=K0004133.pdf](http://library.mw.go.kr/Users/bogun/K/Go/PdfViewer.aspx?mastid=51538&pdf_url=K0004133.pdf)에서 2013년 10월 30일 인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http://yhs.cdc.go.kr/>에서 2012년 11월 14일 인출.
- 신정미, 황혜원. (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 123-154.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오승환. (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 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181-205.
- 오영경,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51-64.
- 우채영, 정현희. (2013). 연구논문 :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 윤은경, 신성희. (2013).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

- 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43(3), 321-330.
- 이득연, 박자양, 이동훈. (2006). 청소년의 역기능적 심리특성과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7(1), 103-115.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 발달 :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인정, 최해경. (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파주: 나남출판.
- 이주리. (2008).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인간발달연구**, 15(2), 87-102.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좌현숙, 오승환. (2011). 내재화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4), 119-147.
- 좌현숙. (2010). 연구논문 :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 차미영, 강승호.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교육학연구**, 48(2), 93-122.
-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유기공포의 매개효과검증 - 남녀 청소년의 모형 비교.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7(2), 3-15.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0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희철, 김옥진. (2009).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노출모형,

스트레스 생성모형, 스트레스 우울 상호순환 효과모형의 검증 :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3), 401-429.

한국아동청소년아카이브. (2010). 01 중2 패널 1-6차년도 유저가이드.pdf. http://archive.nypi.re.kr/sub.asp?BID=B34&idx=675&BoardType=view&page=1&Search_m=&Search_t=&Mcode=C020000에서 2012년 11월 13일 인출.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2. 국외문헌

Achenbach, T. M.(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 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Achenbach, T. M., Dumenci, L., & Rescorla, L. A. (2002). Ten-Year Comparisons of Problems and Competencies for National Samples of Youth: Self,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4), 194-203.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4), 475-50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APA 논문작성법** (제 5 판). (강진령, 역.). 파주: 양서원. (원저 2001 출판).

Aneshensel, C. S. (2010). Neighborhood as a Social Context of the Stress Process. In W. R. Avison & L. I. Pearlin (Eds.). *Advance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tress process: Essays in honor of Leonard I* (pp. 35-52). New York: Springer.

Aneshensel, C. S., & Sucoff, C. A. (1996).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 Social Behavior*, 37(4), 293-310.
- Arnett, J. J. (2007).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A cultural approach*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Avison, W. R. (1999). The impact of mental illness on the family. In C. S. Aneshensel & J. C. Phel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495-515). New York: Springer.
- Avison, W. R. (2010). Family Structure and Women's Lives: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W. R. Avison & L. I. Pearlin (Eds.). *Advance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tress process: Essays in honor of Leonard I* (pp. 71-92). New York: Springer.
- Baron, R. A. (1977). *Human aggression*. New York: Plenum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k, L. E. (2001).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eyers, J., Bates, J., Pettit, G., & Dodge, K. (2003). Neighborhood Structure, Parenting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Youths' Externalizing Behaviors: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2), 35-53.
- Browning, C. R., Soller, B., Gardner, M., & Brooks-Gunn, J. (2013). "Feeling Disorder" as a Comparative and Contingent Process: Gender, Neighborhood Condition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4(3),

296-314.

- Brueggemann, W. G. (2006). *The practice of macro social work* (3rd ed.). Belmont, CA: Thomson Higher Education.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John Wiley.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Butler, A. M. P., Kowalkowski, M., Jones, H. A. P., & Raphael, J. L. M. D. M. P. H. (2012). The Relationship of Reported Neighborhood Conditions With Child Mental Health. *Academic Pediatrics*, *12*(6), 523-531.
- Caughy, M. B., Nettles, S., & O' Campo, P. (2007). Community Influences on Adjustment in First Grade: An Examination of an Integrated Process Mode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6), 819-836.
- Caughy, M. B., Nettles, S., & O' Campo, P. (2008). The Effect of Residential Neighborhood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First Grad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1-2), 39-50.
- Ceballo, R., Ramirez, C., Hearn, K. D., & Maltese, K. L. (2003). Community Violence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Does Parental Monitoring Matte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2*(4), 586-592.
-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3), 275-302.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 Coyne, J. C., & Downey, G. (1991). Social factors and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1), 401-425.
- Daniels, D., & Moos, R. H. (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3), 268-289.
- Davila, J., Stroud, C. B., Starr, L. R., Miller, M. R., Yoneda, A., & Hershenberg, R. (2009). Romantic and sexual activities, parent-adolescent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dolescence, 32*(4), 909-924.
- Deng, S., Lopez, V., Roosa, M. W., Ryu, E., Burrell, G. L., Tein, J.-Y., & Crowder, S. (2006). Family Processes Mediating th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to Early Adolescent Internalizing Problem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2), 206-231.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O. H., Sears, R. R., & Yale University.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Pub. for the Institute of human relations by Yale university press.
- Dunphy, D. C. (1963). The Social Structure of Urban Adolescent Peer Groups. *Sociometry, 26*(2), 230-246.
- Eitle, D., & Turner, R. J. (2003). STRESS EXPOSURE, RACE, AND YOUNG ADULT MALE CRIME. *Sociological Quarterly, 44*(2), 243-269.

- Elder, G. H.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ster, H., & Brooks-Gunn, J. (2009). Toward a Stress Process Model of Children's Exposure to Physical Family and Community Viol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2), 71-94.
- Gayles, J. G., Coatsworth, J. D., Pantin, H. M., & Szapocznik, J. (2009). Parenting and Neighborhood Predictors of Youth Problem Behaviors Within Hispanic Families: The Moderating Role of Family Structur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1*(3), 277-296.
- Gilbert, M. C. (2004). Childhood depression: A risk factor perspective. In M. W. Fraser (Ed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315-346). Washington, DC: NASW Press.
- Golan, N. (1978). *Treatment in crisis situations*. New York: Free Press.
- Gonzales, N., Coxe, S., Roosa, M., White, R. B., Knight, G., Zeiders, K., et al. (2011). Economic Hardship, Neighborhood Context, and Parenting: Prospective Effects on Mexican-American Adolescent's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7*(1-2), 98-113.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5-29.

- Gujarati, D. N., & Porter, D. C. (2010). *Essentials of econometrics* (4th ed.). New York: McGraw-Hill/Irwin.
- Gutman, L. M., McLoyd, V. C., & Tokoyawa, T. (2005). Financial Strain, Neighborhood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Urban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4), 425-449.
- Hammen, C., Adrian, C., Gordon, D., Burge, D., Jaenicke, C., & Hiroto, D. (1987).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Maternal strain and symptom predictors of dysfunc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3), 190-198.
- Hirschi, T. (2002). *Causes of delinquency*. New Brunswick, N.J [u.a.: Transaction Publ.
- Huesmann, L. R., Dubow, E. F., & Boxer, P. (2009). Continuity of aggression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s a predictor of life outcomes: implications for the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models. *Aggressive Behavior, 35*(2), 136-149.
- Ingersoll, M. G. (1989). *Adolescents* (2n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Kanner, A., Coyne, J., Schaefer, C., & Lazarus, R.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Karriker-Jaffe, K., Foshee, V., Ennett, S., & Suchindran, C. (2012). Associations of Neighborhood and Family Factors with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1-17.
- Kim, S. Y., Nair, R., Knight, G. P., Roosa, M. W., & Updegraff, K. A. (2009). Measurement equivalence of neighborhood quality

- measures for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1), 1-20.
- Kimonis, E. R., Frick, P. J. (2012). Externalizing Disorders. In J. E. Maddux & B. A. Winstead (Ed.). *Psychopathology: Foundations for a contemporary understanding* (3rd ed.) (pp. 443-472). New York, NY: Routledge.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ornhauser, R.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An appraisal of analytic mode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vacs, M., Gatsonis, C., Paulauskas, S. L., & Richards, C. (1989).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4.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anxiety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9), 776-782.
- Latkin, C. A., & Aaron, D. C. (2003). Stressful Neighborhoods and Depression: A Prospective Study of the Impact of Neighborhood Disord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1), 34-44.
- Lazarus, 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 Company.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39.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3). Moving to Opportunity: an Experimental Study of Neighborhood Effects on Mental

-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576-1582.
- Lipman, L. E. & Offord, R. D. (1997). Psychosocial Morbidity Among Poor Children in Ontario.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239-28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aschi, T., Perez, R. M., & Tyson, E. (201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Violence, Perceptions of Neighborhood Safety, and Children's Adaptive Functioning: Clinical and Community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0(6), 744-761.
- McLoyd, V. C. (1989).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a changing economy: The effects of paternal job and income loss o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4, 293-302.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2), 311-346.
- Menaghan, E. G. (2010). Work, Family, and Their Intersection. In W. R. Avison & L. I. Pearlin (Eds.). *Advance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tress process: Essays in honor of Leonard I* (pp. 131-145). New York: Springer.
- Menaghan, E. G., Kowaleski-Jones, L., & Mott, F. L. (1997). The Intergenerational Costs of Parental Social Stressors: Academic and Social Difficulties in Early Adolescence for Children of Young Moth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1), 72-86.
- Meyers, S. A., & Miller, C. (2004). DIRECT, MEDIATED, MODERATED, AND CUMULATIVE RELATION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 OUTCOMES. *Adolescence*, 39(153), 121-144.
- Milkie, M. A. (2010). The Stress Process Model: Some Family-Level Considerations. In W. R. Avison & L. I. Pearlin (Eds.). *Advance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tress process: Essays in honor of Leonard I* (pp. 93-108). New York: Springer.
- Miller, B., & Taylor, J. (2012). Racial and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Black and White Youth: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Stress and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4), 426-437.
- Mirowsky, J., & Ross, C. E. (1989). Psychiatric Diagnosis as Reified Measurement.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0(1), 11-25.
- Moos, R. H. (2002). Life stressors, social resources, and coping skills in youth: applications to adolescents with chronic disord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4, Supplement 1), 22-29.
- Myers, R. H. (1990).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s* (2nd ed.). Boston: PWS-KENT.
- Ollendick, T. H., & Yule, W. (1990). Depression in British and American children and its relation to anxiety and fear.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126-129.
- Ollendick, T. H., Sander, J. B. (2012). Internalizing Disorders. In J. E. Maddux & B. A. Winstead (Ed.), *Psychopathology: Foundations for a contemporary understanding* (3rd ed.) (pp. 473-498). New York, NY: Routledge.
- Parke, R. D., Coltrane, S., Duffy, S., Buriel, R., Dennis, J., Powers, J., et al. (2004). Economic Stress, Parenting, and Child

- Adjustment in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5(6), 1632-1656.
- Pearlin, L. I. (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In H. B. Kaplan (Eds.), *Psychosocial Stress* (pp. 3-32). New York: Academic Press.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0(3), 241-256.
- Pearlin, L. I. (1999). The stress process revisited: Reflections on concept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In C. S. Aneshensel & J. C. Phel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395-415).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Pearlin, L. I., & Lieberman, M. A. (1979). Social sources of emotional distress. In R. Simmons (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vol. 1. An annual compilation of research* (pp. 217-248). Greenwich, Conn: JAI Press.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19(1), 2-21.
- Pearlin, L. I., Menaghan, E. G., Morton, A. L.,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 Rapoport, L. (1970). Crisis Intervention as a Mode of Brief Treatment. In R. W. Roberts & R. H. Nee (Eds.). *Theories of social casework* (pp. 307-31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berts, R. E., Roberts, C. R., & Chan, W. (2009). One-year incid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 among adolescent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4), 405-415.
- Roche, K. M., Ghazarian, S. R., Little, T. D., & Leventhal, T. (2011). Understanding Links Between Puni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The Relevance of Context and Reciprocal Associ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2), 448-460.
- Rohde, P., Lewinsohn, P. M., Tilson, M., & Seeley, J. R. (1990). Dimensionality of coping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3), 499-511.
- Roosa, M. W., Deng, S., Ryu, E., Burrell, G. L., Tein, J.-Y., Jones, S., et al. (2005).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Linking Neighborhood Context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2), 515-529.
- Roosa, M. W., Jones, S., Tein, J.-y., & Cree, W. (2003). Prevention Science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Low-Income Children's Developmen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2), 55-72.
- Rosenbaum, M. (1980). A schedule for assessing self-control behaviors: Preliminary findings. *Behavior Therapy*, 11(1), 109-121.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 Ross, C. E. (2000).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177-187.
- Ross, C. E., & Mirowsky, J. (1999). Disorder and Deca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rhood

- Disorder. *Urban Affairs Review*, 34(3), 412-432.
- Ross, C. E., & Mirowsky, J. (2001). Neighborhood Disadvantage, Disorder,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3), 258-276.
- Ross, C. E., & Mirowsky, J. (2009). Neighborhood Disorder, Subjective Alienation, and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49-64.
- Rudolph, K. D., Hammen, C., Burge, D., Lindberg, N., Herzberg, D., & Daley, S. E. (2000). Toward an interpersonal life-stress model of depression: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tress gener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02), 215-234.
- Rueter, M. A., Scaramella, L., Wallace, L., & Conger, R. D. (1999). First onset of depressive or anxiety disorders predicted by the longitudinal course of internalizing symptoms and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8), 726-732.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chofield, T., Conger, R., Conger, K., Martin, M., Brody, G., Simons, R., et al. (2012). Neighborhood Disorder and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The Protective Effect of Family Support Among Mexic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1-2), 101-113.
- Siegel, L. J., & Welsh, B. C. (2009).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Theory, Practice, and Law* (10th ed.). Wadsworth Pub Co.
- Steinberg, L. D. (1999). *Adolescence* (5th ed.). Boston: McGraw-Hill.

- Stiffman, A. R., Hadley-Ives, E., Elze, D., Johnson, S., & Doré, P. (1999). IMPACT OF ENVIRONMENT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9(1), 73-86.
- Taylor, R. B., &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1), 151-189.
- Timko, C., Stovel, K. W., Baumgartner, M., & Moos, R. H. (1995). Acute and Chronic Stressors, Social Resources, and Functioning Among Adolescents With Juvenile Rheumatic Diseas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5(3), 361-385.
- Turner, H. A. (2010). Stress Process Applications in Child Victimization Research. In W. R. Avison & L. I. Pearlin (Eds.). *Advance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stress process: Essays in honor of Leonard I* (pp. 207-228). New York: Springer.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 Wheaton, B., & Clarke, P. (2003). Space Meets Time: Integrating Tempor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Mental Health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5), 680-706.
- Wickrama, K. A. S., & Bryant, C. M. (2003). Community Context of Social Resourc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4), 850-866.
- Wickrama, K. A. S., & Noh, S. (2010). The Long Arm of Community: The Influence of Childhood Community Contexts

- Across the Early Life Cour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8), 894-910.
- Wickrama, K. A. S., Conger, R. D., & Abraham, W. T. (2005). Early Adversity and Later Health: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dversity Through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Journal of Gerontology*, 60(2), 125-129.
- Wickrama, K. A. S., Merten, M. J., & Elder, J. G. H. (2005). Community influence on precocious transitions to adulthood: Racial differences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6), 639-653.
- Wilson, J. Q., & Kelling, G. (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11(3), 29-38.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on
Problem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Jung, Sun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The first seek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on problem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second is design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parent-adolescent stress) on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and problem behavio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 research model was designed, based on Pearlin' s(1999) stress process model.

Pearlin's (1999) stress process model emphasizes the roles of moderating resources and mediator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statuses, neighborhood ambient stressors, primary and secondary stressors, etc. These factors make up the stress process affecting outcome, mental health.

In this study,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denotes neighborhood ambient stressors, parent-adolescent stress denotes secondary stressors, and problem behavior denotes mental health. Anxiety ·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selected a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respectively. Applications of the stress process model on problem behavior among adolescents was investigat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for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earcher used data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 4-wave panel survey of eighth grade students'. The study participants are 3,077 adolescents with an age range of 16-18 years and with parents in Korea excepting Jeju-do in 2006. Because of an outlier, only 3,076 cases are included in the study.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recedent studies and Pearlin's (1999) stress process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ed most of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evels of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 In other words, the worse the anxiety ·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more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is involved.

Second, parent-adolescent stress was found to partially marginally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an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This means that the effects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remain numerous, when parent-adolescent stress is controll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parent-adolescent stres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and behavior problems were tested. In addition, there is significance in that most research hypotheses were supported, based on Pearlin's (1999) stress process model which had not been widely introduced in Kore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used as empirical evidence for programs designed to alleviate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parent-adolescent stress, and problem behaviors.

Keywords : adolescents,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problem behaviors, stres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11-20144

부 록(설문지)

02-4-1 중2 패널 4차년도 청소년용질문지

한국청소년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사에 참여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패널조사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 매년 반복적으로 응답해야하므로 질문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패널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거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항 한 문항 주의 깊게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0.

본인 이름		중2때 학교/반	____중 2학년__반
성별	1. 남자 2.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실제 생년월일을 기입해주세요
현재 상황	1. 학생 ____학교 ____학년 ____반 ____대학교 ____학부/계열 ____전공/학과 2. 학생 아님(제학 중인 학교 없음)		
사는 곳 (주 소)	※ 우편물/경품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주소를 적을 것. 행정구역 단위에 O 표하세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_____		

1.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부모님이 안 계신 귀하는 같이 살고있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지역사회(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해당되는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1)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말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말리거나 경찰서(선생님)에 신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1. 매우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 명)

4-2. 그 친구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친구는 얼마나 됩니까? 왼쪽의 항목을 읽어보고, 그 친구들 중 몇 명 정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오른 쪽에서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십시오.

- 1) 술마시기 (____명)
- 2) 담배 피우기 (____명)
- 3) 무단결석 (____명)
-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____명)
-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뺨뜯기) (____명)
-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____명)

5.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각 문항마다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각 문항마다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지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십시오.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는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 문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변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각 문항마다 오른쪽에서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02-1-2 중2 패널 1차년도 가구용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여가활동, 기타 생활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려고하는 국가적인 연구사업입니다. ○○님 자녀분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표하는 패널로 선정되어 얼마 전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녀분을 통해 전해드린 팜플렛과 가정통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을 ○○님께 직접 여쭙어 보기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로 가정환경에 대한 질문으로 ○○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몇가지 질문에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4)와 문5)는 <대상자 기준 가이드 및 학력보기표> 참조

문4) 실례지만 ○○○학생의 **아버님(남자 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문4-1) 학교급 ()

문4-2) 종류/계열/전공 ()

문4-3) 재학/중퇴/졸업 ()

문4-4) 이수국가(국내/해외) ()

문5) 그럼, 어머님(여자 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 문4)와 동일

문4-1) 학교급 ()

문4-2) 종류/계열/전공 ()

문4-3) 재학/중퇴/졸업 ()

문4-4) 이수국가(국내/해외) ()

02-4-2 중2 패널 4차년도 가구용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4차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과 ○○님 자녀분께서 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해주고 계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학생(청소년)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을 ○○님께 직접 여쭙어 보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님 자녀분은 얼마 전 4차년도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몇가지 질문에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1) 먼저, ○○○님(학생, 청소년)의 **현재 부모님**(현재 부모님과 의 가족구성형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의 부모가 아님

※ 반드시 보기를 모두 읽어 줄 것 ()

- ①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계신다 ☞ 문2)로
- ② 친아버지만 계신다 ☞ 문3)으로
- ③ 친어머니만 계신다 ☞ 문3)으로
- ④ 친아버지와 양어머니(계모)가 계신다 ☞ 문2)로
- ⑤ 친어머니와 양아버지(계부)가 계신다 ☞ 문2)로
- ⑥ 양아버지(계부)와 양어머니(계모)가 계신다 ☞ 문2)로
- ⑦ 양아버지(계부)만 계신다 ☞ 문3)으로
- ⑧ 양어머니(계모)만 계신다 ☞ 문3)으로
- ⑨ 두분 모두 안 계신다(사망) → 그러면, 보호자께서는 ○○○님 (학생, 청소년)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이십니까?
() ☞ 문3)으로

문2) ○○○님(학생, 청소년)이 부모님과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까?
()

- 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다 ☞ 문4)로
- ② 아버지하고만 함께 산다
- ③ 어머니하고만 함께 산다
- ④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다

문3) ○○○님(학생, 청소년)이 아버지/어머니/보호자분과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까?

()

- ① 함께 산다 ☞ 문4)로
- ② 따로 살고 있다

문4) 이번에는 부모님(보호자)의 직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학생(청소년) **아버님(남자 보호자)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직위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예) 직업의 종류: 은행원 직장내에서의 지위: 지점 차장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내에서의 지위 _____

문4-1) 아버님(남자 보호자)의 **1년 전 직업**은 현재와 같았습니까?
다르다면 작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현재와 같았다
- ② 다르다 ☞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내에서의 지위 _____

문5) 학생(청소년)의 어머님(여자 보호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머님(여자 보호자)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문4)와 동일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내에서의 지위 _____

문5-1)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1년 전 직업은 현재와 같았습니까?

다르다면 작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현재와 같다

② 다르다 ☞ 직업의 종류 _____
직장내에서의 지위 _____

문6) 이번에는 ○○○님(학생,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6-1) ○○○님(학생, 청소년)의 언니/누나/오빠/형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단, 결혼해서 분가한 형제자매는 제외해
주세요. (동거 여부 관계없음)

① 예 → ()명

② 아니오

문6-2) 그럼, ○○○님(학생, 청소년)의 동생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동거 여부 관계없음)

① 예 → ()명

② 아니오

문6-3) ○○님 댁에 학생(청소년)의 할아버지께서 같이 살고 계십
니까? (친/외할아버지 구분 안함)

()

① 예

② 아니오

문6-4) ○○님 댁에 학생(청소년)의 할머니께서 같이 살고 계십니
까? (친/외할머니 구분 안함)

① 예

② 아니오

문6-5) ○○님 댁에 같이 살고 있는 ○○○님(학생, 청소년)의 친척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① 예 → ()명

② 아니오

문8) ○○님 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님 댁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결혼 후 분가한 형제자매제외)

월평균(_____) 만원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